

함께 하는 안전

문화가 되다

함께하는 안전 문화가 되다

2017 서비스분야 안전보건활동 우수사례집



- SPC그룹 비알코리아(주)

부산시설공단

(주)태운

(주)KT

현대자동차(주) 남양연구소

풀무원식품(주)

롯데백화점 광주점

한국수자원공사

삼성웰스토리



2017 서비스분야 안전보건활동 우수사례집

함께하는 안전

문화가 되다



고용노동부

산업재해예방

안전보건공단



안전보건활동 우수사례 벤치마킹을 통해 모두가 행복한 안전습관, 안전문화 만들기

2017년 7월 3일 제50회 산업안전보건의 날 기념식에서 새로운 정부는 산업안전보건정책에 대한 메시지를 통해 그 어떤 것도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보다 우선이 될 수 없다고 강조하며, 산업안전 패러다임의 전환을 선언했습니다. 이에 그동안 각종 예방 대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감소하지 않는 산재를 선진국 수준으로 감소시키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에 인식을 같이하고 8월 17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산재예방을 위한 책임 주체와 보호 대상을 확대하고,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관행과 구조적 요인까지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중대 산업재해 예방대책』을 의결한 바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위험 주체의 안전 관리 책임을 강화하였으며 작업의 위험성을 막론하고 하청업체를 선정할 때는 안전 관리 역량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의무화하였습니다. 또한 안전 관리 규정을 위반할 시는 원청과 하청 모두 동일하게 처벌하는 등 그 제재를 강화했습니다.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도 가맹점 측에 사용하도록 요구한 설비와 재료 등에 대한 위험성 정보 등을 제공해야 한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근로자들의 신체적 건강은 물론 정신적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감정노동자 보호입법’을 추진하고, 각 사업장의 안전보건 관리시스템의 내실화를 위해 공공기관과 대규모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내 생명·안전 업무를 담당하는 안전·보건관리자를 직접 채용하도록 한다는 방침도 세웠습니다.

이제껏 산업 발전이라는 목표를 향해 옆과 뒤도 돌아보지 못한 채 앞만 보며 달려왔던 시선을 이젠 일의 주체가 되는 하나 밖에 없는 생명, 소중한 사람에게 향하게끔 하는 것입니다. 날로 강화되는 안전보건 관리의 중요성에 발맞추어 안전보건공단은 지난 30년간 한결같이 모든 일터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생명과 건강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공단 설립 당시만 해도 2.66%에 이르던 산업재해율 또한 적극적인 안전보건 서비스 제공과 인프라 구축을 통해 0.5%까지 낮추는데 성공했습니다. 무엇보다 안전보건에 대한 인식의 변화와 저변확대, 사업장마다 정착된 자율안전보건활동은 공단이 이룬 가장 보람찬 성과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해야 할 일은 곳곳에 존재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발생하고 있는 중대재해와 상대적으로 산재 발생률이 높아지고 있는 고령근로자를 비롯한 여성, 외국인 등의 산재취약계층 그리고 소규모 사업장과 기업의 협력, 하청업체 근로자들의 안전보건 확보도 적극적으로 해결, 관리해 나가야 할 것들입니다.

이 책은 서비스분야 각 사업장의 안전보건 활동에 도움을 드리고자 발간되었습니다. 서비스분야 사업장들의 우수한 안전보건 사례를 발굴하고 홍보, 확산시켜 서로 벤치마킹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열렸던 지난 2016년, 2017년 “서비스 분야 안전보건 활동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수상의 영예를 안은 9개 업체의 사례들로 구성했습니다. 현장에서 실제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안전보건 활동의 사례들을 스토리텔링 형식으로 누구나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입니다. 모쪼록 이 사례집이 각 서비스분야 사업장의 안전보건 역량 향상에 작은 보탬이어나마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앞으로도 공단은 ‘일하는 사람의 행복파트너, 최고의 산업재해예방 전문기관’이라는 비전 달성을 위해 여러분들과 함께 더욱 힘차게 뛸 것을 약속 드립니다.

안전보건공단 이사장 이 영 순

함께하는 안전

문화가 되다



CONTENTS

2016	SPC그룹 비알코리아(주) _ 025
	부산시설공단 _ 037
	(주)태운 _ 049
2017	(주)KT _ 061
	현대자동차(주) 남양연구소 _ 073
	플무원식품(주) _ 085
	롯데백화점 광주점 _ 097
	한국수자원공사 _ 109
	삼성웰스토리 _ 121



눈길 닿는 곳마다 안전스티커가 있기에
커피 한 잔을 담는 손길도 조심스러워집니다.
모두가 활짝 웃는 안전행복 프랜차이즈, 비알코리아.

셉테드(CPTED)개념을 접목한 보다 안전한 부산 만들기.
근로자는 물론 시민의 안전까지 책임져야 하기에
부산시설공단 안전예방 안전활동은 더 철저합니다.





별경계 달구어진 쇳물이 흘러가고 남은 슬래그.
몸집은 100톤에 달하는 무거운 차량일지라도 안전은 스마트하게
태운은 스마트 안전 앱으로 오늘도 무재해 10배수를 향해 달립니다.



사람과 사람의 마음을 이어주기 위해
오늘도 높은 통신주와 어두운 맨홀에서 묵묵히 밤 흘리는 근로자들.
KT는 매일 아침 따뜻한 Safety Message로 안전 하루를 열어갑니다.



최첨단 설비와 극한 상황까지 치닫는 각종 위험 시험들.
하지만 각 센터별 철저한 안전관리 시스템이 있기에 오늘도,
현대자동차 남양연구소의 불은 환하게 빛납니다.

Pulmuone

세상에 없던 라면
생면식감

생면식감의
고소한 면발
경험해보세요



Pulmuon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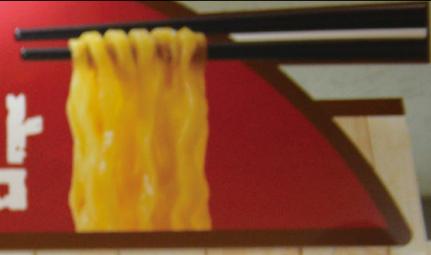
라면 생면식감

부담없이 맛있게 드세요
즐거움 소핑되세요

화상주의
접촉금지



세상에 없던 라면
생면식감




FRESH READY MEAL

식탁이 편리해질수록 더 신선하게 만듭니다

2017년 풀무원 하반기 신제품 품평회

고객이 봄비는 매장의 판촉행사.
피로방지 안전화 착용과 시식대 위 안전지침을 준수하는 직원들.
풀무원식품은 오늘도 건강하고 바른 먹거리를 널리 알립니다.

가끔 고객들의 억지스러운 행동에
가슴이 시커멓게 멎더라도 톡톡 위로해 주는 힐링센터가 있어
롯데백화점 광주점은 오늘도 맑음입니다.





자연이 주는 소중한 물에 인간의 노력을 더하다.
생명을 살리고 유지하는 깨끗한 물을 통한 전국민 안전홍보 캠페인까지.
한국수자원공사는 근로자의 안전을 넘어 대한민국의 안전을 생각합니다.



하루 110만개의 식사를 준비하는 것은 조금 고단한 일이지만
서로의 친절한 안전말하기와 마음을 알아주는 WAVE 서포터즈가 있기에
삼성웰스토리는 오늘도 웃음으로 가득합니다.

안전을
먼저 생각하는
안전보건공단.

함께하는
안전문화를
만들어하겠습니다.



함께하는 안전
문화가 되자

비알코리아(주)

참 잘했어요!

안전행복 프랜차이즈 시스템 도입 후 2016년부터 현재까지 재해 Zero

지난 2016년 안전보건공단 서비스분야 안전보건활동 우수사례 발표에서 고용노동부 장관 상인 대상을 수상한 SPC그룹 비알코리아(주). 명실공히 아이스크림과 도너츠 NO.1 브랜드인 배스킨라빈스와 던킨도너츠를 운영하고 있는 비알코리아는 매장 직원의 안전과 스트레스 관리가 서비스의 질적 향상에도 성과가 높다는 점을 인식하여 안전보건공단과 함께 위험성평가를 실시, 2015년 12월 안전행복 프랜차이즈 인증을 받았다. 이후 철저한 매뉴얼 관리와 안전 교육을 비롯한 다양한 안전 관련 소통 채널 운영으로 안전행복 프랜차이즈 인증 이후 단 한 건의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아 안전사고 청정지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 Safety Story

SPC그룹 비알코리아(주)

📅 설립일	1985년
📍 본사 소재지	서울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620
🏪 매장수	배스킨라빈스 : 직영 95개, 가맹 1,193개 던킨도너츠 : 직영 181개, 가맹 588개
👥 사원수	2,057명



어떠한 상황에서도 당황하지 말고~

매뉴얼대로 척척척

아침 일찍부터 날아든 문자 메시지 소리에 눈을 뜬 오 점장. “이른 아침부터 누구지?”, “태풍 고니 북상 중 8월 25일~26일. 한반도에 영향 (300mm이상 많은 비 예상). 강풍 폭우 대비 시설물 및 우, 배수로 점검. 비상연락망 숙지. 피해 발생 즉시 산업안전팀 연락 02)2276-5582~5 [SPC 식품안전센터]”

창을 열어보니 하늘에 구멍이 뚫렸는지 물벼락이 쏟아진다. 어김없이 장마철이 시작된 것이다. 오 점장은 아침 식사도 먹는 등 마는 등 다른 날보다 출근 준비를 서두른다. 폭우로 인하여 교통 체증을 우려한 사람들이 지하철로 많이 몰리기에 행여나 늦지나 않을까 마음이 바빠진다. 매장에 도착하니 김 매니저도 벌써 유니폼을 갈아입고 있다. 김 매니저와 함께 매장 인팍을 살피는 오 점장. 거센 빗물이 우산 속으로 파고 들어 옷이 흠뻑 젖어 찻찻하지만 우선 폭우로 인한 피해 상황은 없는지 꼼꼼이 살핀다. 야외 테라스의 난간과 간판부터 시작해 어디 비가 새는 곳은 없는지, 그리고 비바람에 날리지 않도록 배너와 이젤도 단단히 다시 한 번 고정을 시킨다. 장마철 체크리스트 항목에

따라 모든 점검을 마치고 슈퍼바이저(SV)에게 점검결과를 SNS로 보내고 나서야 오 점장은 한숨을 돌리며 김 매니저와 함께 따뜻한 커피 한 잔을 마시며 고객을 맞이, 달콤한 휴식을 즐긴다.

SPC그룹 비알코리아(주)는 폭우나 폭설 등 재해 재난에 대비한 「기상현황 모니터링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상황의 발생에 대비한 「체크리스트 및 비상연락 체계」를 매뉴얼화해 어떠한 긴급 상황일지라도 당황하지 않고 매뉴얼대로 안전사고 예방 활동을 할 수 있게끔 준비하고 있다.

주요점검항목	점검결과		점검항목사항
	O	X	
비상연락체 정보			특이사항 발생시 2인당연락
피난유도 등 관리상태			피난(대피로 유도 등) 점검 상태 확인
비상조명등 관리상태			상시 점검등이 꺼질 수 있도록 관리
소화기 관리상태			압력이 정상범위(누계)에 있도록 한다
천지, 벽면 누수 여부			누수부 보수조치
주방, 매장(출입구 포함)바닥 물기 상태			상시 바닥 물기 제거 실시, 냉매실 방지
아워캐스 난간 고정, 비락 율동 여부			피손여부를 점검
벽나, 이물질, 야생 고정 상태			물트레일 등 고정 상태 점검
침수지역 차수판, 오개 등 비차여부			매장 내 우수 유입 방지
안전 관리 상태 (승인, 불명, 피복 등)			안전이 놓이거나 적어서 않도록 한다
누전 차단기 작동상태			테스트 스위치 정상작동 여부
옥외 관외 누수 조치			빗물 유입으로 인한 창문 예방
가스누설검지기, 차단기 관리 상태			관행이 공급되는지 확인
가스누설점검			비누물 등 활용 점검 실시
냉장고 도어 기밀 여부			냉장고 도어 기밀상태 유지
드라이어리스, 열원 확보			점검시 냉장, 열원식용 보존관리
식재료 밀봉상태 점검보관			식재료 밀봉개방
조리기구 소독 여부			해결기 위생관리 강화

▲ 정마철 체크리스트

**안전에 대한 정보는 스펀지처럼 속 흡수!
우리 것으로 만든다**

1985년 SPC그룹과 세계적인 식품그룹 얼라이드 도맥(Allied Domecq)의 합작투자자로 설립된 비알코리아는 프리미엄 아이스크림 브랜드 배스킨라빈스(Bask in Robbins)와 글로벌 No.1 도너츠 브랜드인 던킨도너츠(Dunkin's Donuts)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다.

던킨도너츠는 1993년 비알코리아와 던킨도너츠 인터내셔널사가 기술제휴 계약을 체결하며 탄생하였다. 세계적인 도너츠 브랜드인 던킨도너츠는 사업초기부터 “커피&도넛”이라는 마케팅으로 인기를 끌었으며 최근에는 웰빙 흐름에 맞춘 다양한 도너츠 신제품 개발과 커피 및 큐브 음료 등을 선보이며 현재 직영점 181개 포함하여 전국

적으로 769개 매장이 운영되고 있다.

배스킨라빈스는 1953년 창립자인 Mr.Baskin과 Mr.Robbins의 이름을 딴 세계적인 프리미엄 아이스크림 브랜드로 한 달 31일내내 새로운 맛을 선사한다는 의미의 31을 붙여 Baskin Robbins 31으로 탄생했다. 현재 직영점 95개를 포함, 전국적으로 1,193개의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다.



비알코리아는 매일 수많은 고객을 직접 대면하는 서비스업으로 최근 고객의 안전에 대한 관심 증대와 함께 서비스 산업 안전규제 강화 게다가 그룹의 규모가 날로 커짐에 따라 안전보건 시스템 구축을 강화할 수 밖에 없는 대내외적인 환경에 놓여 있었다. 이에 인간 존중, HS 문화선도, 열린 소통이라는 세 가지 목표를 가지고 체계적인 안전보건 경영을 펼쳐왔다. 안전보건 전담 조직으로는 SPC그룹 SPC식품안전센터내 그룹 안전을 총괄하는 산업안전팀과 각 계열사별 안전보건담당팀이 있다. 비알코리아는 경영기획실에 안전보건 기획을 담당하는 산업간호사와 영업본부 SV가 중간관리자를 그리고 각 매장의 점장들이 안전에 대한 관리감독자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비알코리아는 2015년 안전보건공단의 도움을 받아 매장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 「안전행복 프랜차이즈 인증」을 받았다. 이는 올해 5월 안전동행 프로그램으로 명칭이 변경된 바 있다. 비알코리아는 프랑스 칼리사(Kalys) 분석 항목 중 직원 출퇴근 안전과 보안, 스트레스 관리 등 매장 보안관리 항목을 추가해 실시한 위험성평가를 통해 「계획-Plan, 실행 및 운영-Do, 점검-Check, 개선-Action」 사항에 대한 인증매뉴얼과 위험성평가절차서, 음료, 샐러드, 도넛 제조 등 안전작업절차서 등 「SPC 통합매뉴얼을 제작했다. 이러한 과정으로 만들어진 매뉴얼은 경영진의 승인을 얻어 각 매장별 교육과 전문가를 초빙한 교육으로 이어졌다.

“안전한 작업방법에 대해서는 신입 직원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었죠. 또한 이번에 안전동행 프로그램을 준비하면서 안전보건공단에서 ‘위험말하기 운동’에 대한 부분을 강조한 것에 착안해 상황별 주의해야 할 포인트에 주의 문구를 스티커로 부착하여 직원들이 바로 바로 보고 인지할 수 있도록 했어요.”

“창고에 적재된 물건을 내릴 때 사용하는 사다리나 카트에도 주의사항 스티커가 붙어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다시 한 번 조심하게 되죠.”

특히 배스킨라빈스 경우, 커다란 아이스크림 통(Tub)을 수시로 들고 내리기 때문에 허리를 삐끗하거나 무릎을 다치는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사고에 대비해 중량물 안내 표지를 붙여 중량물 취급시 무게 중심과 올바른 자세로 작업할 수 있도록 했다.

안전행복 프랜차이즈 인증/안전동행 프로그램



안전보건 활동	안전행복 프랜차이즈 인증	안전보건 관리 역량강 구축
Plan	위험성평가 인증 및 안전보건 매뉴얼 제작	신속한 알람시스템 구축
Do	위험성평가 및 매뉴얼 제작 배포·교육 이수	재난대비 SMS 발송 시스템 개발
Check	위험성평가 실시 결과 확인/교육 이수여부 확인	SMS 발송 시스템 Test
Action	개선 사항 적용 및 안전보건 매뉴얼 수정·보완	안전보건 관리 연락망 상시 Open 및 활용



▲ 점식 사다리에 부착된 주의사항 문구를 인지하고 사용



▲ 5kg 이상의 물체는 무게 중심을 고려하여 취급

계급장 떼고 이야기할까?

안전에 대해서는 위 아래가 없다

비알코리아의 각 매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의 평균 연령은 20-30대. 프랜차이즈 비즈니스의 특성답게 젊은 층이 주를 이룬다.

“요즘 젊은 애들은 개성이 너무 강해”, “일방적으로 지시를 하면 말을 안 들어요. 이해가 갈 때까지 설득을 시켜야 한다니깐.”, “옛날에는 위에서 하라면 무조건 납작 엎드렸는데 요즘은 안 통해.” 산전수전을 다 겪은 만년과장의 푸념이다.

그렇다. 요즘 젊은 직원들은 자기 주장이 강하고 ‘왜 그래야 하는지’ 이해가 되어야 움직인다. 그렇기에 비알코리아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바로 ‘소통’과 ‘함께하기’이다.

“직원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다양한 채널을 운영하고 있어요. 어떤 부분이 근무할 때 위험요소가 되고, 또 개선이 필요한 지 실제로 매장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가장 잘 알기 때문이죠. 현장에서 직접 듣기도 하지만 지식소통마을이라는 제안 제도를 활용해 자유롭게 의견을 낼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CEO와 함께하는 런치와 디너 데이트인 「CEO와의 대화」, 팀 커뮤니케이션 향상을 위해 팀원들과 함께하는 조직문화 활성화 활동 「Happy Afternoon」, 직원들의 다양한 의견과 경영 이슈를 공유하는 「주니어보드」, 위험요소 발견 시 즉시 신고 가능한 「Hot Line」 운영이 모두 현장에서의 활발한 소통을 위해 마련한 채널들이다. 실제로 「지식소통마을」을 통해 등록된 제안은 총 835건에 달한다.

디테일의 힘!

연속 무재해 달성에는 이유가 있다

“안돼! 보안경을 꺼야지.”, “그러다 드라이 아이스 파편이 눈에라도 들어가면 어찌

려고.” 김 매니저의 다급한 목소리에 신입 직원은 움찔한다.

“조금 편하자고 또 이 정도 쫓아야 하는 생각이 가장 위험해요.” 평소에 잘 웃고 친절하기로 유명한 김 매니저의 단호한 목소리에 신입 직원은 ‘아차’ 싶다. 이러한 철저한 안전매뉴얼에 의한 관리가 2015년 12월부터 현재까지 안전사고 Zero의 원동력이다.

뜨거운 전기오븐 사용시 보호장갑 착용, 칼을 사용할 때 베임방지장갑 착용, 칼 가위 등 위험도구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도구 전용 보관대 이용, 미끄럼 사고 방지를 위한 바닥 물기 제거 및 눈슬립 테이프 부착, 청소시 입간판 비치, 이동 통로내 적재물 제거, 반복작업으로 인한 근골격계 질환 예방을 위한 작업 조리대 높이 확인 및 작업 전 스트레칭, 장시간 입식 근무로 인한 하지정맥류, 요통 질환을 예방하는 피로예방 매트 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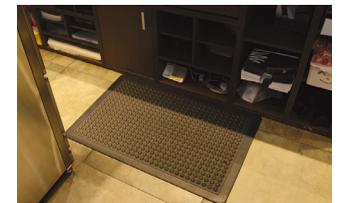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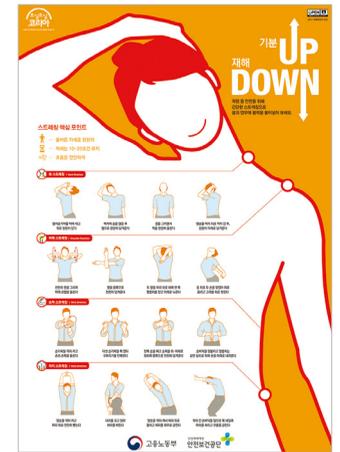
▲ 드라이아이스 취급시 개방된 장소에서 보호구(보안경, 토시) 착용



▲ 전기오븐 사용시 보호장갑 착용



▲ 칼 베임방지장갑 착용



▲ 피로예방 매트

치 등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을 만드는 세부적인 매뉴얼을 운영하고 있다.

최근에는 오랜 시간 고객을 응대해야 하는데 따른 스트레스 관리에 대한 방안을 강화하고 있다. 매장마다 감정노동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질환과 증상 그리고 스트레스 측정치를 부착해두고 수시로 체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필요한 경우는 산업간호사와 연결하여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했다.

이와 같은 끊임없는 교육과 실천으로 비알코리아는 안전행복 프랜차이즈 인증 전후 매장 근로자 인식도 조사 결과, 안전보건 활동 참여부문 77%, 실천부문 43%가 향상되는 성과를 얻어냈다.

앞으로 비알코리아는 안전보건 시스템의 자율적 정착을 목표로 위험성평가 인정을 2015년 2개 매장, 2016년 4개 매장에 이어 전 직영매장으로 확대해 안전행복 프랜차이즈 매뉴얼을 도입할 예정이다. 또한 매장 안전보건 뉴스레터 등 안전보건 자료의 다양화를 통해 매장에서 상시적으로 안전에 대해 말하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 나갈 계획이다.



CEO Interview

건강한 직원이 안전한 일터에서 긍정적인 마인드로 일하면 서비스도 좋아질 것



안전에 대한 저의 기본 생각은 무엇보다 일하는 직원들이 행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배스킨라빈스는 WE MAKE PEOPLE HAPPY를 모토로 하여 단순히 아이스크림을 파는 것이 아니라 보는 즐거움과 먹는 즐거움을 팔고 있습니다. 즐거움을 파는 직원들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근무하는 안전한 환경이 기반이 되어야 힘을 늘 강조하고 있습니다. 행복한 직원의 긍정적인 마인드는 고객에게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조 상 호 대표이사 / 비알코리아(주)

안전보건활동에 있어 비알코리아만의 특징적인 부분이 있다면 소개해주세요.

안전보건은 모두가 관심을 갖고 각 분야의 담당자들과 매장 직원들이 유기적으로 소통하고 협업해야만 완성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열린 소통을 가장 강조하고 있습니다.

가장 효과를 거두었거나 직원 만족도가 높았던 안전보건 프로그램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직원 만족도가 높았던 안전보건 프로그램은 4년째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는 금연, 체중조절 프로그램입니다. 이러한 프로그램을 통해 금연을 하는 직원들도 매년 늘었으며, 체중조절 프로그램을 통해 무게는 7~8kg씩 감량하기도 합니다. 본인과 가족의 건강을 위해 도전하고 노력하는 직원들을 보면 얼굴 표정도 밝고 업무성과도 좋습니다.

안전보건 활동에 대한 향후 계획이 궁금합니다.

지금까지는 직원들의 인식을 높이고 체계를 갖추어 안전보건 문화를 만들어 나가는 시기였다면 앞으로는 안전보건 시스템을 정착하는 단계로 발돋움하겠습니다. 매장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안전보건 시스템을 충분히 이해하고 실천하여 매장의 특성에 맞게 자율적으로 활동하는 단계로 넘어가야 할 것이며, 우수사례를 발굴하

여 전파하도록 할 것입니다. 그리고 고객을 상대하는 매장 근무 직원들의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이나 제도적인 부분에서의 보완, 필요한 경우, 활용할 수 있는 연계 체계를 구성하여 보다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한 눈에 보는 'SPC그룹 비알코리아(주)'

비알코리아는 2001년 5월, Allied Domecq가 전 세계 배스킨라빈스와 던킨도너츠를 대상으로 경영 전반에 관해 우수 국가에 수여하는 'Challenge of Excellence' 부문에서 두 브랜드 모두가 최우수상을 수상해 화제가 된 바 있다. 또한 2008년 6월 26일 보스턴에서 열린 전 세계 44개국 글로벌 던킨 브랜드(던킨도너츠, 배스킨라빈스)중에서 최우수 프랜차이즈에게 수여되는 2008년 프랜차이즈 대상(Dunkin' Donuts Partner/Licensee of the Year)을 수상하기도 했다. 이러한 우수 경영과 더불어 비알코리아는 안전행복 프랜차이즈 시스템을 적용한 후로 2016년부터 현재까지 재해 Zero를 기록하고 있다.

 <p>상황별 대처 시스템 구축</p> <p>기상 현황 모니터링 시스템, 체크리스트, 비상연락 체계</p>	<p>0%</p> <p>2016 ~ 현재 재해 0%</p> <p>2015년 12월 안전행복 프랜차이즈 시스템 도입 후 무재해 달성 중</p>	 <p>PLAN</p> <p>위험성평가 인증, 안전보건 매뉴얼 제작, 신속한 알림시스템 구축</p>
 <p>DO</p> <p>위험성평가/매뉴얼 제작 배포, 교육 이수, 재난대비 SMS발송 시스템 개발</p>	 <p>CHECK</p> <p>위험성평가 실시결과 확인/교육 이수 여부 확인, SMS발송 시스템 Test</p>	 <p>ACTION</p> <p>개선사항/안전보건 매뉴얼 수정 보완, 안전보건 관리 연락망 상시 열람/활용</p>
<p>77% ↑</p> <p>안전보건 활동 참여도 상승</p> <p>안전행복 프랜차이즈 인증 후, 근로자 참여도 조사결과(2.2점 → 3.9점)</p>	<p>43% ↑</p> <p>안전보건 활동 실천도 상승</p> <p>안전행복 프랜차이즈 인증 후, 근로자 실천도 조사결과(2.8점 → 4.0점)</p>	<p>비알코리아(주)</p>

함께하는 안전
문화가 되어

우리가 어데 남이가? 안전에 대해서는 우리는 하나

부산시설공단은 1992년 2월 부산직할시 주차관리공단으로 창립한 이래 23년간 부산시민과 함께 성장해왔다.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안전에 대한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는 요즘 부산시설공단은 부산 전역에 걸쳐 위치한 총 18개 분야의 122개 공공시설물을 관리하느라 여념이 없다. 수많은 시민이 이용하는 시설물이 대부분이기에 직원들의 안전 관리는 물론 시민의 안전 관리까지 고려해야 하는 숙명을 가졌다. 2013년 공단은 전 사업장에 걸쳐 KOSHA 18001 인증을 받아 철저한 안전 예방 시스템을 구축하고 위험성평가 강화를 위해 셉테드(CPTED)개념을 접목하여 올해 재해건수 제로를 향해 순항 중이다.



+ Safety Story

부산시설공단

 설립일		1992년 2월 1일
 본사 소재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새싹로 174
 임직원수		646명
 주요업무		18개 분야 122개 시설물 관리



니가 와라, 부산으로~

관광명소 가득한 부산, 모두를 위한 안전 관리

부산은 대한민국 제2의 도시이자, 제1의 무역항이다. 동쪽과 남쪽은 바다와 접해 있고 내륙은 고유의 정서를 담고 있어 누구나 한 번쯤 방문하고픈 동경의 대상지이기도 하다. 지역 특유의 다채로운 매력을 가진 터라 영화 촬영의 최적지로도 손꼽히며 ‘부산 영화’라는 단어까지 만들어냈다. 수많은 영화 속에 등장하는 비릿한 바다 내음과 구수한 부산 사투리가 어우러지는 자갈치 시장, 배가 지나갈 때마다 웅장하게 들어 올려지는 영도대교, 바다 위 환상적인 야경을 감상할 수 있는 광안대로 등 비단 부산 시민 뿐만 아니라 온국민에게 사랑받는 이러한 공간을 모두 부산시설공단이 관리하고 있다.

“관리를 해야 하는 사업장이 부산 전역에 넓게 분포되어 있어요. 그렇기에 한 시라도 소홀히 하면 안전 관리에 빨간불이 켜 질 수 있기 때문에 항상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습니다. 거의 모든 시설물이 평상시에도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공간이기에 전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안전관리는 물론 시민의 안전까지 동시에 생각해야 하죠.”

“맞아예, 우리가 어데 남이가?”
부산 특유의 끈끈한 정이 물씬 느껴진다.

부산시설공단은 1992년 2월 부산직할시 주차관리공단으로 창립되었다. 이 후, 1998년 부산광역시 시설관리공단으로 확대 개편되었으며 지난 2010년 지금의 부산시설공단으로 사명을 변경했다. 지방공기업법(제76조)에 의거 공공시설물의 효율적 관리 운영을 통한 시민들의 복리 증진에 기여하고자 설립된 부산시설공단은 현재 부산광역시내 18개 분야의 총 122개 시설물을 관리하고 있다.

부산시설공단이 관리하는 부산광역시내 시설물

18개 사업 122개 시설물 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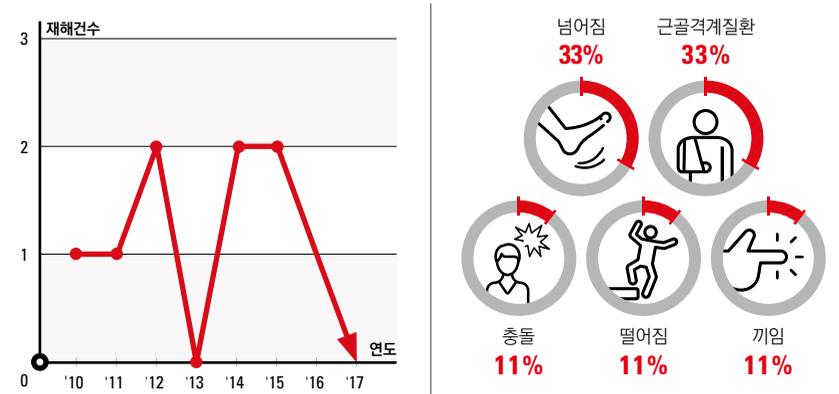
- 공원 : 7개소(15백만㎡)
- 교통 : 교량 3개소, 도로 2개소, 공영주차장 58개소, 터널/지하차도 43개소 등
- 장사 : 2개소(화장로, 봉안당)
- 체육 : 스포츠센터 1개소
- 문화 : 1개소(극장 2, 전시실 2 등)
- 상가 : 지하도 상가 5개소 1,048개



우리가 알고 있는 자갈치 시장을 비롯한 태종대 유원지, 광안대로, 영락공원, 부산 시민공원 등도 모두 부산시설공단의 관리물로 이러한 시설물의 안전한 관리와 운영을 위해 총 646명의 근로자가 일하고 있다. 근로자 중의 40%는 비정규직, 일용직이 차지하고 있으며, 2004년부터는 참여 정부의 4대 국정 과제 중 하나로 65세 이상 노령자의 공공노인 일자리 사업 전개로 고령 근로자의 수도 증가하는 추세다.

“김씨, 저 쪽에 풀을 좀 깎아야겠어.”, “내가 이 쪽부터 할 테니, 서씨는 그 쪽부터 해오면 될 것 같네.”, “이 풀들은 어떻게 이렇게 빨리 자란데, 하루 만에 쑥쑥 크는 거 같구먼.”, “조심해, 화단이 좀 가파르네.” 주의를 주는 순간, 중심을 잃고 밀로 굴러 떨어진 김씨. 정말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다. “아이고, 김씨, 김씨.”

재해건수 연도별 현황 / 재해 발생 유형



2012년 제초 작업을 하던 고령 근로자가 떨어짐 사고로 안타깝게 사망한 사건이다. 이 날 이후로 공단은 안전위험성평가를 실시, 보다 철저한 안전 교육과 안전 난간 및 안전망 설치 등의 대응안을 마련했다. 이렇듯 부산시설공단에서 그간 발생한 재해현황을 살펴보면 중대재해는 거의 없으나, 넘어짐과 떨어짐, 근골격계 질환 등 고령 근로자의 재해가 눈에 띈다.

안전에 관한 구심점을 곳곳에

1부서 1안전보건담당자 지정

부산시설공단은 올해 2017년 무재해 사업장 실현을 위한 최고경영자의 안전경영 의지가 담긴 “안전 최우선! 무재해 실현! 쾌적한 사업장 구현!”을 경영방침으로 선포했다. 이미 지난 2010년 도로사업단, 교량사업단이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 18001) 인증」을 획득했으며 그 이듬해에는 시민회관, 시설관리사업단을 비롯해 현재는 공단이 관리하는 전 사업장이 인증을 획득, 작년 2016년부터 재인증이 완료되었다.

“세월호 사고 이후, 안전보건 재난관리 강화가 이루어졌습니다. 가슴 아픈 사고로 인해 다시금 안전에 대해 깊이 생각해보고 시스템을 정비하는 계기가 된 것이죠.”

공단도 예외는 아니어서 기존에 총무인사팀과 감사실에서 해오던 재난 및 안전보건 점검관리를 2015년 12월 기술안전팀을 신설, 전담하게 했다. 또한 각 부서별 재난대응 능력 향상을 위한 재난안전 실태 평가를 시행하여 서면과 현장 심사를 통해 우수 부서를 선정해 공단 이사장 표창을 수여하는 등 모든 근로자들의 재난 안전업무에 대한 관심과 능동적인 자세를 이끌어냈다.

“안전을 담당하는 인력도 확대했어요. 기존 25명의 팀장이 담당하던 것을 팀장을 비롯한 지소장, 영양사 등 41명으로 확대했죠. 무엇보다 효과적인 것은 1부서 1안전보건담당자를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조직이 그렇듯 명확한 책임자가 없으면 그 일에 대해서는 흐지부지되는 경향이 있잖아요. 부서별 관리 감독자와 함께 안전보건 활동을 추진하는 전담 인력을 지정해 실질적인 활동과 안전관리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했습니다.”

전 사업장 안전보건 경영시스템 인증

2010	2013	2016
<p>KOSHA 18001 도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진적 안전보건관리 시스템의 필요성 공감 · 광안대로, 도시고속도로 인증 획득 (*10.12.13) 	<p>전 사업장 인증 성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원사업단, 영락공원, 한마음 스포츠센터 인증 성공 	<p>KOSHA 18001 정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스템 6년간 운영 · 전 사업장 KOSHA 18001 연장 심사를 통한 재인증 성공 

이러한 부서별 안전보건 담당자는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교육원에서 실시하는 KOSHA 18001 인증실무교육은 물론 위험성평가 전문가 양성과정을 이수하는 등 명실공히 실력 있는 안전보건 관리자로 단련된다.

소 잃기 전에 외양간은 미리 고쳐야지
위험성평가에 셉테드(CPTED) 개념 접목

“이렇게 푹푹 찌는 날씨에는 에어컨 아래 있는 게 최고인데.”, “살다 살다 이렇게 살인적인 더위는 처음이야, 가만히 있어도 익겠어.”, “빨리 끝내고 들어가자. 얼른 판넬이나 열어.”, “으악! 뜨거워.”
야외에 설치된 전기제어 판넬에 손을 대는 순간 마치 난로의 열기에 텐 듯한 기분 나쁜 찌릿함이 온몸을 휘감는다. “뭐야, 날씨가 뜨거워서 그런가, 전기가 흐르는 건가, 아이들이 와서 무심코 손을 대면 큰일나겠는데...”

부산시설공단은 일상 생활 속에 자칫 놓치기 쉬운 부분까지 구석구석 찾아내 보다 안전한 환경으로 개선하고자 위험성평가 강화를 위해 셉테드(CPTED) 개념을 접목했다. 셉테드란, 「범죄예방 환경설계(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의 약자로 환경 설계를 통한 범죄 예방 건축설계 기법으로 건축물 등 도시 시설을 설계 단계부터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환경으로 조성하는 기법 및 제도를 일컫는다. 이러한 셉테드 개념을 적용하여 사전에 안전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모든 환경적 요소를 제거하거나 개선하는 활동을 의미한다.

이에 2015년 7월 셉테드 기법을 적용한 위험성평가 방법에 대한 교육을 시작한 이래 총 39건의 셉테드 적용 우수 개선 사례를 발굴하였으며 이러한 내용은 셉테드 사례집으로 제작되어 전부서가 공유할 수 있도록 배포했다.

“위의 사례처럼 야외에 설치된 제어 판넬은 스테인리스 재질로 열전도에 취약해요. 특히 뜨거운 여름에는 화상 사고가 발생할 수 있죠. 그래서 외부를 열차단 시트로 부

착해 위험요소를 제거했습니다. 시민회관 극장내 상부 작업장의 전등도 조도가 낮아 안전사고가 우려된다는 평가에 LED 전등으로 교체했고요, 작업장 이동 통로에 있는 요철이 있는 보도 블럭도 넘어짐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평가에 보도 블럭 사이의 빈틈을 모두 채워 안전한 환경으로 개선했습니다. 자칫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도시고속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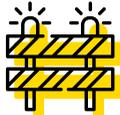
셉테드(CPTED) 기법 적용 위험성평가 개선

셉테드란?

- 범죄 예방 환경설계(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의 약자
- 물리적 환경 설계를 통해 범행 기회를 차단하는 기법



위험성평가에 노출된
유해·위험 요인



영역성 강화, 활동의 활성화,
자연감시, 접근통제, 유지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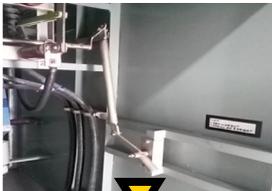


유해·위험 요인 제거

셉테드(CPTED) 기법 적용 사례



▲ 곡선 구간 사전안내 표시



▲ 원거리 컨트롤러 설치, 자동 작동 설치



▲ 수영장 소독약품 주입시 펌프 사용

로 다수의 곡선 구간에도 사전 안내 표시를 부착했구요.” 이 모두가 셉테드 기법을 적용한 안전환경 개선 사례다.

공단에는 나타나기만 하면 누구에게나 환영을 받는 인기맨이 있다. 바로 「안전드림닥터」가 그 주인공이다. 안전드림닥터는 무재난, 무재해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 위험한 요인의 발굴은 물론 해결까지 해주는 맥가이버들로 토목, 건축, 통신, 기계, 전기, 환경 등 숙련된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총 30명의 직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은 수시로 부산 곳곳에 위치한 시설물을 돌며 시설물 안전 점검은 물론 사고 발생시 현장을 면밀히 조사하는가 하면, 원인별 응급 복구 방법을 함께 머리를 맞대고 연구하는 자문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공단이 작년에 서면지하상가를 인수해 위탁 경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10월에는 롯데지하상가를 인수해 위탁 경영을 하게 되지요. 이렇게 신규 시설물이 발생하면 제일 먼저 안전드림닥터가 소집됩니다. 안전드림닥터들이 각 분야별로 면밀하게 시설물의 현상태 점검 및 안전점검 분석을 하게 됩니다.”

이 밖에도 작년 연말에는 안전보건공단 자료를 바탕으로 위험기계기구 22종 안전 수칙 뿐만 아니라 공단 내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작업에 대한 안전보건 표준 업무 처리 지침서를 제정하여 안전보건 교육시에 활용하고 있다.



▲ 분야별 전문기술직원(30명)으로 구성된 '안전드림닥터'가 유해·위험 요인 진단

모두가 가슴에 추억 하나 묻고 갈 수 있는 안전하고 쾌적한 부산 만들기

매일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시설물을 관리하는 만큼 시민들의 안전확보에 대한 준비도 소홀히 할 수 없다. 이에 공단은 매월 4일 「안전점검의 날」을 운영하며 안전점검의 일상화 훈련은 물론 언제 어디서 불쑥 발생할 지 모르는 만약의 위급상황 발생에 대비해 응급 처치술, 심폐소생술, 정진, 화재, 교통사고 등 인적 재난사고와 폭설, 안개, 침수 등 자연재난 발생시 대처훈련도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이와 함께 공단에는 일의 특성상 아무래도 시설물 곳곳에 현장 근로자 및 고령 근로자가 많아 종종 근골격계 질환 환자가 발생하곤 한다. 이에 공단은 2004년부터 꾸준히 근골격계 질환을 일으킬 수 있는 유해요인 조사를 실시해오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작업대 및 작업 환경의 개선 및 근로자의 바른 자세, 업무 시작 전 스트레칭의 생활화를 실천하고 있다. 점심시간을 활용해 운동을 할 수 있도록 탁구대를 설치하고 헬스장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금연클리닉은 물론 건강식단에 대한 정보도 공유하여 근로자의 하루가 보다 활기찰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해 운영하고 있다.

또한 지역내 병원과의 업무협약을 통한 직원 보건혜택과 전직원을 대상으로 격년마다 1인당 20만원의 종합건강검진비를 지원해 직원들의 만족도가 상당히 높다.

이러한 노력들이 모여 현재 부산시설공단은 작년에 발생한 넘어짐 사고 1건 이래로 현재까지 무재해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공단이 내걸고 있는 “안전 최우선! 무재해 실현! 쾌적한 사업장 구현!”이 실현되고 있는 것이다. 보다 안전한 부산, 부산 시민은 물론 부산을 방문하는 모두가 즐거운 추억을 가득 안고 돌아갈 수 있는 부산을 만들기 위해 오늘 이 순간에도 부산시설공단과 근로자들은 현장에서 값진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Safety Interview

안전에 관한 남다른 혁신과 도전, 안전을 위해서라면 한 발 앞서 있어야 한다



과거 교량이나 대로의 시설물에서 안전사고가 제일 많았습니다. 그래서 2010년 제일 먼저 도로나 교량 부분의 시설물 관리를 맡고 있는 광안대교사업단과 도로관리사업단이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 18001)인증을 받게 되었죠. KOSHA 18001 인증 후 모든 것들이 체계적으로 관리되니 재해율도 뚝 떨어졌습니다.

처음에는 기준을 맞추기 힘든 부분도 있었지만 인증을 받고 시간이 흐를수록 결과는 모두에게 만족이었죠. 그래서 현재 부산시설공단은 전 사업장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을 받아 안전보건경영이 정착된 상태라 할 수 있습니다. 공단은 비단 공단 근로자 뿐 아니라 하도급 근로자, 시민의 안전까지도 담당해야 합니다. 그렇기에 안전에 관한 어떠한 선진적인 기법이 있으면 바로 도입, 적용하고 있지요. 셉테드(CPTED) 개념의 도입 적용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적극적인 외부 재난 전문가의 자문을 통한 재난안전 대응과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약을 통한 안전보건 활동 강화도 모두 이러한 안전에 대한 ‘안전 최우선! 무재해 실현! 쾌적한 사업장 구현!’이라는 공단의 기본 철학에 기인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공단은 안전보건 활동 강화와 직원들의 건강을 위해 안전보건공단, 정신건강증진센터, 전기안전공사와의 MOU를 체결했습니다. 이러한 대내외적인 활발한 안전 활동의 실천으로 지난 2014년에는 부산광역시 안전문

화 대상을 수상했으며 2015년에는 안전문화대상 국민안전처 장관표창을 수상했습니다.

앞으로 저희 공단은 보다 건강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 공단 주치의 제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역 병원과의 업무 협약을 통해 직원들의 무료 건강상담 및 건강에 이상이 있을 경우, 사후관리를 위한 프로그램도 마련할 것입니다. 더불어 공단과 함께 하는 하도급업체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공단 근로자와 함께 철저한 안전교육과 시스템을 적용, 모두가 행복하게 웃을 수 있는 일터 만들기 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김 찬 석
경영본부 안전관리팀 팀장



한 눈에 보는 '부산시설공단'

부산시설공단은 1992년 2월 부산직할시 주차관리공단으로 창립한 이래 23년간 부산의 성장과 함께 해왔다. 부산 전역에 걸쳐 광범위하게 분포되어 있는 총 18개 분야의 122개 공공시설물을 관리하고 있는 부산시설공단은 이러한 시설물을 수많은 시민들이 이용하기에 직원은 물론 시민들의 안전관리까지 고려해야 하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 이에 공단은 모두의 안전을 위한 위험성평가 강화를 위해 범죄예방 사전설계의 셉테드(CPRTD) 개념을 안전관리 시스템에 도입하고, 1부서 1안전책임자를 두는 등 보다 철저한 안전관리를 통해 2017년 재해율 Zero를 향해 순항 중이다.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 인증

공단이 관리하는 전 사업장의 인증 획득



1부서, 1안전보건담당자

실질적인 활동, 안전관리에 대한 명확한 책임 소재



위험서 평가 셉테드 개념 적용

사전에 안전사고 발생할 수 있는 환경적 요소 제거/개선



안전드림닥터

수시로 안전점검, 사고 발생 현장조사, 응급복구 연구 등



안전점검의 날

안전점검의 일상화 훈련, 인적/자연 재난사고 대처훈련



다양한 건강 프로그램 운영

업무 시작전 스트레칭, 금연클리닉, 건강식단의 정보 공유



건강 종합검진비 지원

격년마다 1인당 20만원의 건강 종합검진비 지원



안전이 최우선인 무재해 사업장

'16에 발생한 넘어짐 사고 1건 이래로 현재까지 무재해 행진



부산시설공단

함께하는 안전

문화가 되어



작지만 강하다! 스마트 안전 DNA 장착

1981년 POSCO가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국가산업단지 안에 건설한 광양제철소. 금호도 갯벌을 매립해 만든 광양제철소는 1982년 연간 270만의 조강 생산능력을 갖춘 1기 설비 건설 착공을 시작으로 현재 연간 쇳물 2147만을 생산하는 단일 제철소로는 세계 최대 규모를 자랑한다. (주)태운은 POSCO의 협력사로서 광양제철소 선강부에서 발생하는 슬래그 운송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그 처리 규모는 연간 430만에 달한다. 매일 쏟아져 나오는 고열의 슬래그를 40t 덤프 차량과 100t 중장비인 슬래그 포트카로 매일 날라야 하는 위험한 작업이기에 잠깐의 부주의가 자칫하면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이에 태운은 시간과 장소에 제약 받지 않는 'SMART TAEWOON SYSTEM'을 개발, 전직원 안전 관리의 습관화를 통해 올해 9월 무재해 9배수라는 대기록을 달성했다.



+ Safety Story

(주)태운

📅 설립일		2010년 7월
📍 본사 소재지		전라남도 광양시 향만9로 148
👥 임직원수		76명
⚙️ 주요업무		광양제철소 선강부분 부산물 운송업무



언제나 함께 하는

안전을 위한 친절 파트너

“아니, 내일 출근해야 할 사람이 이렇게 새벽까지 안자면 어찌려고 그래요?”, “이건 월드컵 평가전이야.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당연히 응원을 해야지. 조용히 해봐. 그렇지, 그래, 슈웃! 아... 아깝다. 패스가 조금 더 빨랐어야지.”

좀체 골이 터지지 않는 축구경기에 온몸을 들썩이며 흥분하던 김 과장이 잠든 시간은 새벽3시가 지나서이다. 눈을 감자마자 밝아온 아침. 제대로 잠을 자지 못한 터라, 입안도 까칠하여 김 과장은 아침밥도 먹는 등 마는 등 집을 나선다.

“그러니깐, 일찍 자라고 했잖아요.” 현관을 나서는 등 뒤로 아내의 잔소리가 날아와 쫓힌다.

“에휴, 아침부터 잔소리는” 회사에 출근한 김 과장은 커피믹스 한 잔을 진하게 타서 마시며 오늘의 업무를 확인하고 40t 덤프 트럭에 오른다.

“차량점검은 했습니까?”, “안전벨트는 땀습니까?”, “전조등은 켜습니까?” 차량내 스마트폰과 연결된 블루투스 스피커에서 들리는 목소리. “네... 네... 이건 뭐, 마누라가 두 명이라니깐.” 김 과장은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핸들에 손을 얹는다.

트럭 창문으로 쏟아져 들어오는 햇살이 한없이 따사로운 전형적인 봄날이다. 자신도 모르게 스르르 눈이 감기는 김 과장. “전방에 교차로입니다. 일단 정지하세요.”, “응... 으악!”

급하게 브레이크를 밟는 순간, 트럭 앞을 가로지르며 경고성 헤드라이트를 번쩍 쏘고 지나가는 승용차. “휴... 큰일날 뻔했네.” 김 과장은 가슴을 쓸어 내린다. 자기도 모르게 잠깐 사이 졸음 운전을 한 것이다.

“고맙다.” 김 과장은 스마트폰을 향해 찡긋 미소를 날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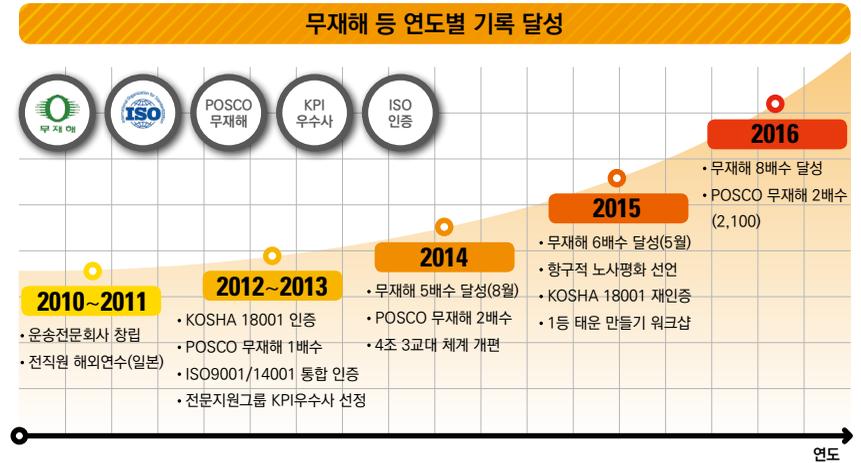
POSCO의 튼튼한 안전시스템 그 노하우를 잇다

2010년 설립된 (주)태운은 포스코 광양제철소 선강 부분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슬래그)의 운송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회사이다. 이러한 태운의 역사는 엄밀히 말하면 30년 전부터 시작되었다. 당시, 포스코 광양제철소가 가동되면서 슬래그 운송, 재처리, 상차하는 업무를 한 회사로 외주화하였고, 각 업무별 분사가 이루어지면서 2010년 태운을 설립, 현재의 운송업무를 담당하게 된 것이다.

태운이 운송하는 슬래그는 그 형태에 따라 건식 슬래그, 용융 슬래그가 있다. 건조된 상태의 건식 슬래그는 그 배출량에 따라 15톤, 25.5톤, 40톤의 덤프차량이, 뜨거운 액체 상태의 용융 슬래그는 62톤, 70톤, 80톤, 100톤의 슬래그 포트카로 운송하며 연간 총 430만톤의 슬래그를 운반하고 있다. 바퀴 하나의 무게만 해도 100kg에 달하는 대형 중장비를 매일 운영함에도 태운은 회사 설립 이후 오늘날까지 단 한 건의 중대사고 발생이 없이 2017년 9월 기준, 무재해 9배수라는 놀라운 기록 행진을 해가고 있다.

“비결이라면 30년간 포스코와 함께 해 온 우수한 인력들이 태운 설립부터 현재까지 회사 안정화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기 때문이죠. 또한 포스코의 체계를 적극 도입함으로써 안전환경팀과 시스템도 초기부터 잘 정착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포스코의 노하우와 태운의 핵심인력을 통해 태운은 설립 초기인 2012년 KOSHA 18001 인증, ISO 9001/14001 통합인증을 비롯한 POSCO 무재해 1배수 달성, 전문지원그룹 KPI 우수사 선정 등 그 어느 기업보다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안전보건관리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안전! 제일!” 모든 일의 시작과 끝이 바로 안전

태운은 매일 밤낮없이 대형 차량의 운송이 이루어지기에 1년 365일 안전사고의 위험을 안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모든 작업이 단독작업으로 이루어지기에 만약의 사고 발생시 초기 대응이 힘들다. 그렇기에 안전사고 예방의 중요성이 더욱 절실할 수 밖에 없다. 이에 태운은 안전관리의 스마트화를 통한 무재해 사업장이라는 안전 비전을 선포하고 자기주도의 안전활동은 물론 주요 위험 개선활동과 「SMART TAEWOON SYSTEM」 앱을 개발, 스마트폰으로 언제나 누구나 쉽게 안전관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안전!”, “제일!” 태운에는 하루 종일 여기저기서 “안전”, “제일”이라는 인사소리가 끊이지 않는다. 언제 누구라도 서로 마주치기만 하면 인사로 “안전”을 외치고, 상대는 “제일”이라고 답한다. 식사시간에 마주쳐도 어김이 없다.

“이러한 안전 인사가 언뜻 보면 아주 단순하게 느껴지지만 사실은 가장 효과적이고 훌륭한 안전예방 습관입니다. 입으로 그 단어를 내뱉음으로써 모든 일의 시작과 끝이 바로 안전이라는 인식을 심어주죠.”

작업 전 서로의 교대시간에 이루어지는 위험요인 토크를 통한 「위험예지활동」도 필수다. 모든 작업이 단독작업으로 이루어지기에 그 날 먼저 작업을 한 작업자의 위험요인에 대한 주의를 큰 효과를 발휘한다. 나아가 본격적인 「작업전 개인 TBM(자문자답카드)을 실시」하여 다시 한 번 안전 위험요소에 대한 철저한 자율 점검을 한다.



▲ 작업전 위험요인 토크를 통한 위험예지활동

STOP 2 (개인TBM)

작업명 : 덤프 25톤 운전작업

안전인사&굿드라이버
안전TBM & 작업요인예방

- STOP
지금 운전하는 차량의 업무내용은?
- THINK
오늘 '스마트안전' 차량상태 확인은?
- PLAN
안전벨트, 휴대폰보관함 지금 확인 !!
전조등 켜고, 좌/우 지리확인 후 출발!

- ✓ 안전 중점 지시사항은 무엇인가?
- ✓ 인수인계시 위험요소는 무엇인가?
- ✓ 차량 승/하차시 추락 위험포인트는?
- ✓ 상저작업시 접촉사고 위험포인트는?
- ✓ 운행 중 낙하물이 발생하는 장소/지역은?
- ✓ 세운장 통과시 설비와 접촉 개소는?
- ✓ 세운장 통과시 설비와 접촉 개소는?

▲ 개인 TBM(자문자답카드) 실시로 안전확보

“얼마 전, 자칫 사고가 될 뻔한 Near miss 사례가 있었어요. 광양 제철소 내에는 차량이 운행하는 대로가 있고, 그 대로에서 갈라지는 지선이 있습니다. 문제는 좁은 지선에서 큰 도로로 대각선 방향으로 진행하는 노선이었어요. 저희 차량이 너무 크다 보니 대각선으로 진행하면서 생긴 사각지대에 있는 승용차를 보지 못해 하마터면 충돌사고가 날 뻔했죠.”

이 날, 곧바로 사고재발 방지책에 대한 조별 토론회가 열렸다. 그 결과, 좁은 지선에서 바로 대로방향 왕복 6차선을 가로 지르는 것은 항

상 위험요소가 될 수 밖에 없다고 판단하고 운행 경로 자체를 변경하기로 결정했다. 대각선이 아닌 우회전을 했다가 다시 좌회전을 하도록 작업표준을 변경해 근본적으로 위험요소를 차단한 것이다. 이렇듯 작은 Near miss도 놓치지 않고 철저한 분석과 관리로 그 발생건수가 매년 감소해 2015년 총 5건에 머물렀다.

안전활동이 습관이 되도록! ‘스마트 태운 시스템’으로 안전 DNA 심기

펄펄 끓는 뜨거운 쇳물이 흘러 나가고 남은 액체 부산물을 담아 운송하는 슬래그 포트가 작업. 자칫 실수라도 해서 용융 슬래그가 소량 바닥에 떨어지더라도 “땡!” 하고 튀어 올라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실제 운전자가 내려 작업 확인을 하는 자체가 위험한 상황인 것이다. 이러한 위험요소를 똑소리 나게 해결해주는 시스템이 바로 「SMART TAEWOON SYSTEM」 앱이다. 스마트폰 화면으로는 작업 진행상태를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고, 블루투스와 연결된 스피커로는 “포트 장착이 완료되었습니다.”와 같이 청각적으로 작업 상황을 위험요소 없이 안전하게 파악할 수 있다. 또한 밀폐공간 진입 시에도 산소 농도와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하는 가스센서와 내부상황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CCTV가 작업자의 스마트폰과 연결되어 안전하게 배재장의 내부 상황을 보면서 작업할 수 있게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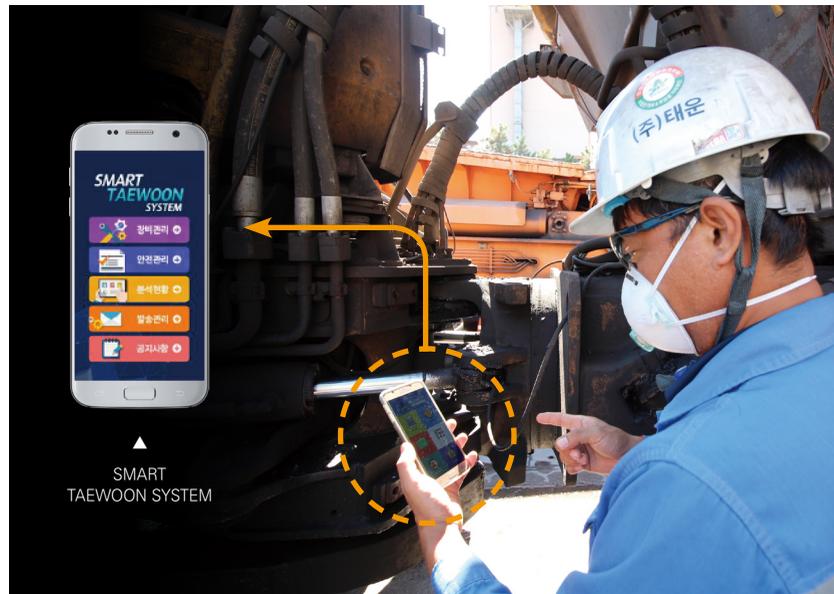
“예전에는 안전활동 결과나 보고서를 쓸 때 컴퓨터를 잘못하니깐 아들도 부르고, 딸도 불러서 도움을 받았죠. 시간이 많이 걸렸고요. 그런데 이제는 스마트폰으로 그냥 터치해서 체크만 하면 되니깐 정말 편하고 좋아요. 특히, 정말 위험하다 싶은 요소가 있으면 사장님께 직접 문서를 보낼 수도 있고, 안전팀장이나 동료 등 선택적으로 보낼 수 있어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스마트폰으로 체크된 안전점검 결과는 PDF 문서로 전환되어 그룹웨어에 보관, 이력 관리된다. MSDS, 작업표준서, 위험성평가서 등도 마찬가지로.

‘여기 이 구역에서 나도 모르게 항상 속도를 내고 있네. 주의해야겠어’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며 혼잣말을 하는 김씨.

「SMART TAEWOON SYSTEM」 앱 도입 후, 자주 볼 수 있는 광경이다. 스마트 앱을 통해 개인별 운행실적 데이터와 운전습관이 기록되기에 자기도 모르는 불안정한 운전 습관을 눈으로 확인하고 개선할 수 있게 되었다. 이렇듯 「SMART TAEWOON SYSTEM」은 작업을 위해 차량에 오름과 동시에 안전 확인을 위한 주의부터 위험 작업 시 서포터이자, 안전 관련 습관까지 교정해주는 역할을 해내고 있다.

이러한 스마트폰을 이용한 「SMART TAEWOON SYSTEM」 도입이 초기부터 순탄치만은 않았다. 일부 직원들은 ‘회사가 직원들을 감시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부정적인 의견도 있었다. 하지만 감시가 아닌 안전 습관을 위한 하나의 도구임을 강조하며 설득해나갔다. 끊임없는 대화 속에 노사화합이 선행되어야 시행할 수 있는 시스템인 것이다.



태운의 안전관리 시스템



자기주도 안전활동

- 안전인사, 굿드라이브 안전활동
- 작업전 위험요인 Talking
- 작업중 지적확인



주요위험 개선활동

- 대형중장비의 협착, 충돌요인 제거
- 고위험개소 오감활용으로 사고예방
- IOT 기술적응으로 잠재위험 개선



안전관리 시스템

- 시간, 장소 제약없는 안전관리
- 동일기준의 안전점검 실시
- 체계적인 위험요인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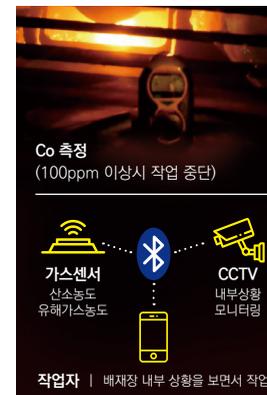
안전관리의 스마트화, 안전의식 확립 일상화, 체계적 위험요인 분석으로 무재해 사업장 구축



▲ 현장 근로자의 안전인사



▲ 근로자 안전교육



▲ 밀폐공간 유해가스 실시간 확인



▲ 위험개소 위험인식 이중화 확보



▲ 운전습관 과학적 분석, 불안정 행동 개선

“이제는 직원들이 더 좋아하고 편하게 이용하죠. 귀찮은 업무들도 오히려 간소화 되었으니깐요. 무엇보다 안전 위험요소를 습관적으로 매일 사전에 체크해서 인지 올해 무재해 9배수 달성도 무난히 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다른 POSCO의 협력 운송사들이 벤치마킹을 위해 찾는 태운의 안전관리 시스템. 앞으로도 태운은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는 최첨단 스마트 기술을 안전관리에 적용하여 매년 무사고 태운으로서의 신기록을 써 나갈 것이다.



CEO Interview

안전활동도 쉽고 재미있어야 습관이 되고 문화가 된다



그렇지만 안전사고 시스템에 대한 투자는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보다 신기술, IoT을 접목해 위험요소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나갈 것입니다.

구 황 회
대표이사

기업경영에는 여러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지만 가장 궁극적인 목표는 이윤창출입니다. 이러한 이윤창출을 위해 가장 최우선시되어야 하는 것이 바로 근로자의 안전이죠. 사고가 나면 직접 손실도 있지만 간접 손실도 큼니다. 사고가 발생하면 작업장의 분위기도 안 좋아지고 생산성이 떨어질 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항상 경영의 최우선 가치를 안전에 두고, 어떻게 하면 직원들에게 안전에 대한 가치를 잘 인식시킬 수 있을까 고민해왔습니다.

결론은 습관화입니다. 단순히 아는 것은 학습에 머무는 것이죠. 습관은 스스로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재미있고 단순해야 합니다. 재미있고 쉬워야 행동으로 이어지고, 습관이 되고, 문화로 정착되는 것이니까요.

스마트폰 사용은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신기하게도 잘합니다. 그리고 재미있죠. 이것이 바로 2015년 7월 런칭한 스마트폰 앱을 이용한 안전관리 「SMART TAEWOON SYSTEM」의 시작입니다.

작업의 시작부터 끝까지 모든 안전에 대한 점검 사항은 물론 운전 습관까지 데이터가 되어 분석되죠. 저희 태운은 회사 설립 시기부터 지금까지 무재해사업장입니다.





한 눈에 보는 '(주)태운'



태운은 POSCO의 협력사로서 광양제철소 선강부에서 발생하는 슬래그 운송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그 처리 규모는 연간 430만t에 달한다. 매일 산더미처럼 쏟아져 나오는 고열의 슬래그를 대형 중장비로 운송해야 하기에 안전에 대한 긴장의 끈을 한시도 놓을 수 없다. 이에 항상 남들보다 한 발 앞선 안전시스템 도입과 적용을 해온 태운은 지난 2015년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SMART TAEWOON SYSTEM' 앱을 개발하였다. 안전활동을 넘어 안전문화 정착화를 위한 '스마트 안전'을 실현한 태운은 회사 설립 이후, 단 한 건의 중대사고 발생없이 올해 9월 무재해 9배수라는 대기록을 달성하였다.



무재해 9배수 달성

재난관리의 일원화 및
지휘체계의 강화



작업전 위험요인 Talking

위험요소를 작업 전 상기시키는
위험 예지활동



개인 TMB(자문자답카드)

업무내용에 따라
작업의 내용숙지, 위험요소 파악



안전인사

근로자 상호간 "안전", "제일" 구호로
인사하며 안전의 중요성 각인



과학적인 운전습관 분석

운행자 개인의 운행습관을
분석, 통보하여 자율개선으로 이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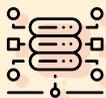
위험인식 이중화

상황에 맞는 시각적, 청각적
위험인식 신호 확보



Smart Taewoon System

안전 확인, 위험작업시 서포트,
안전관련 습관 교정



IoT 기술적용

사고가능성이 있는 현장에
센서를 부착하여 잠재위험 개선



함께하는 안전
문화가 되어



‘설마 나에게?’ 방심은 가라! KT는 일 년 내내 안전교육 중

(주)KT는 ICT를 기반으로 세계에서 가장 빠르고 혁신적인 통신과 융합서비스를 제공, 국민의 편익을 도모하는 최고의 국민기업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 이와 함께 ‘안전문화를 선도하는 Global 1등 KT 실현’을 비전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정작 KT 안전경영의 현실은 녹록하지 않다. 통신주 작업, 맨홀 작업, 차량 운행 등 각 현장 근로자들에게서 발생하는 산업재해가 좀체 줄어들지 않는 것이다. 이에 KT는 2017년을 산업재해 발생 50% 획기적 감소의 해로 설정하고 기관장은 물론 전직원을 대상으로 입체적인 안전교육과 위험작업 근로자의 집중 안전관리로 사내에 안전바람을 일으키고 있다. 또한 통신업계 최초 공생협력 프로그램 참여와 전사업장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 인정을 추진하고 있다.



+ Safety Story

(주)KT

 설립일	1981년 12월 10일
 본사 소재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불정로 90
 임직원수	2만 3천여명 (그룹사 제외/2016년 기준)
 매출액	22조 7,437억원 (2016년 기준)

안전! 안전! 안전!

매월 4일은 안전점검의 날

“모두 안전모를 착용하세요.,” “사다리를 펼칩니다. 혹시 문제가 있는 부분은 없는지 확인하세요.,”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마치 몇 년을 해 온 것처럼 능숙하게 움직이는 사람들.

오늘은 9월 4일. 안전점검의 날이다. 매월 4일이면 전국 218개 (주)KT 지점에서는 어김없이 기관장이 주도하는 「안전점검의 날 행사」가 펼쳐진다. 실내 교육장에서는 테마별 안전교육과 재해 사례 공유 등의 시청각 교육이 이루어지고, 밖으로 나와서는 안전모, 안전대를 비롯한 개인보호구 점검과 작업 사다리, 차량의 타이어 및 브레이크 점검 등이 이루어진다.

“안전! 안전! 안전!” 행사의 마침표를 찍는 우렁찬 목소리가 찌렁찌렁 울린 후에야 모두가 차량에 올라 마치 썰물 빠지듯 작업 현장으로 출동한다.

그 옛날, 1가구 1전화 시대를 개척한 전자교환기 개발부터 사이버 공간을 연 ‘코넷(KORNET)’ 인터넷까지, 스마트폰 혁명의 신호탄이 된 국내 최초 아이폰 도입에서 GiGA 인프라와 5G로 앞서가는 ICT 융합서비스에 이르기까지 KT는 지난 131년간 대

한민국의 통신 역사를 이끌어온 국내 최대 종합통신사업자이다. 현재는 전국적으로 51개 지사와 131개 지점, 36개 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총 2만 3천여명의 근로자가 KT의 한 지붕 아래 일하고 있다.

가랑비에도 절대 방심하지 말 것 사고의 32% 통신주 작업 중 발생

KT는 '안전문화를 선도하는 Global 1등 KT'를 안전 비전으로 채택, 올해 2017년을 산업재해 발생 50% 획기적 감소의 해로 정하고 그 어느 때 보다 공격적인 안전강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KT는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첫째, 기관장 중심의 안전 책임경영 추진 둘째, 위험작업 현장직원의 집중 안전관리 셋째, 사전적 안전 예방활동 및 안전문화 정착 넷째, 심리상담의 활성화로 근로자 정신건강 증진을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어째 날씨가 꾸물꾸물한데... 이러다 비 내리는 거 아냐?”, “내려봤자 얼마나 내리겠어. 비 온다는 예보도 없었잖아. 얼른 하면 되지.”, “어, 빗방울 떨어진다.”, “이 정도 이슬비쯤이야. 괜찮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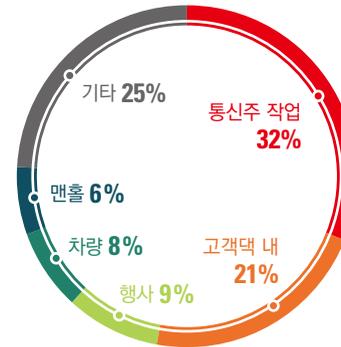
잠깐의 방심이 사고를 불러왔다. 가랑비를 맞으며 통신주 작업을 하던 김 대리가 감전사고를 당한 것이다. 사고는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일어났다.

“통신주 작업 중에 가장 많은 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파트나 주택 밀집 지역이 아닌 외곽 지역의 경우에는 통신주 작업이 많아 그 발생건수가 많아지죠. 비 내리는 날 감전사고나 사다리에서 떨어짐, 미끄러짐 사고 등이 가장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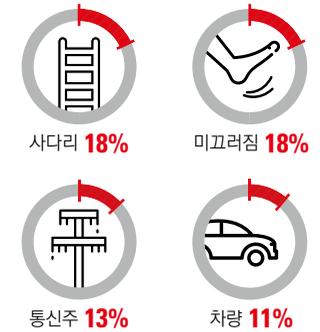
불과 두 달 전에도, 전북 순창에서 비를 맞으며 인터넷망을 수리하던 40대 근로자가 추락사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KT는 철저한 원인 분석과 함께 안전보호장비 착용, 장비 점검, 폭우시 통신주 오르지 않기 등 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안전매뉴얼의 실천과 안전교육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산재 장소별 현황 및 현장 작업유형

장소별 산재발생 현황 (2014~2017)



기인물별 산재발생 현황 (2014~2017)



대부분의 업무가 현장 중심으로 이루어지다 보니 각 기관장들은 한시도 마음을 놓을 수 없다. 모두에게 안전에 대한 마인드가 습관처럼 몸에 밸 수 있도록 교육에 집중하는 것도 그러한 이유에서다. “제일 먼저 기관장은 물론 현장 관리감독자가 안전교육을 100% 이수해야 합니다. 위에서부터 안전에 대한 모든 상황들을 속속들이 알고 관리해야 하니까요. 신입 직책자의 안전관리 교육도 물론 이루어지고요.” 특별히 현장 사고 위험율이 높은 사다리, 통신주, 맨홀, 특수차량 및 일반 차량을 운행하는 근로자들에게는 메일로 현장작업 「안전수칙 카드 뉴스」가 전달된다. 현장에 나가기 전, 다시 한번 안전에 대한 생각을 하게끔 하는 것이다. 또한 전직원을 대상으로 「안전보건공단 온라인 안전교육」도 이루어진다. 한마디로 KT에서는 일년 내내 안전에 대한 교육이 끊임없이 반복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2017년 안전보건 4대 추진방향 및 주요내용

안전문화를 선도하는 Global 안전 1등 KT가 되겠습니다

• 기관장 중심의 안전 책임경영

- 사고발생 후속조치 프로세스 개선 및 강화
- 기관장/관리감독자 직무교육
- 기관장 안전관리 실천 서약
- 신입 직책자 안전관리 교육
- 안전점검의 날 행사

• 선제적 예방활동 및 안전문화장착

- KT그룹 안전협의회 및 안전종합 상황실 운영
- 전직원 심폐소생술교육 및 전문가 양성
- 산업안전보건대회, 1등 워크숍 개최
- 안전사각지대 발굴 및 해소 추진
- KT그룹 재난대피훈련 실시



• 심리상담 활성화로 정신건강 증진

- 심리상담센터 구축 운영
- 효율적인 심리상담 교육 확대
- 산업재해취약부서 팀 상담 실시
- 힐링캠프를 통한 감정노동자 보호 강화
- 스트레스 검사 시행 및 선제적 예방 케어 활동

• 위험작업 수행직원 집중안전관리

- 현장 출동직원 알콜측정 실시
- 5대 분야 안전수칙카드뉴스 운영
- 무재해 4단계 일일 안전활동 시행
- Safety Message 운영확대, 강화
- 노사합동 안전장비 운영실태 조사 및 개선



▲ 안전점검의 날 행사



▲ 해아림 심리상담 센터 운영



▲ 안전종합상황실 운영



▲ 안전장비 개선

오늘도 행복한 얼굴로 퇴근하는

당신을 생각합니다, Safety Message

“현장에서 고생하시는 직원 분들께 전달 드립니다. 현재 전국이 흐리고 곳에 따라 많은 비가 내리는 등 현장 작업 시 비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상황입니다. 우천으로 사다리 작업시 평소 보다 더욱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고 반드시 안전수칙을 지켜 작업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며 다음 사항을 당부 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안전사고에 유의해 주시고, 자택으로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사다리 작업 안전수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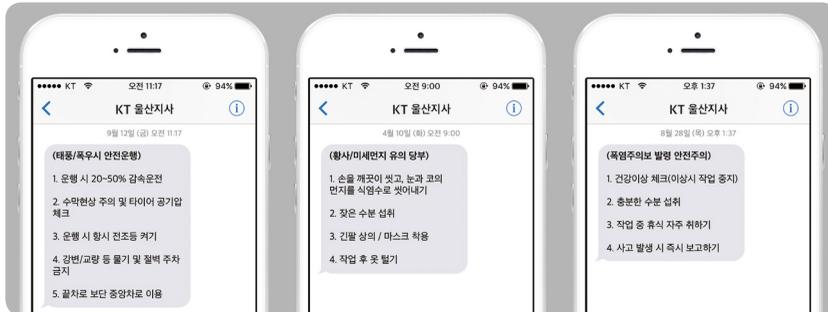
- 사다리 결함여부 확인 및 상/하단 단단히 고정
- 안전모/안전대/안전화 반드시 착용
- 안전대 연결고리 체결 상태 눈으로 확인
- 3점(양손, 양발 중 3곳) 접촉상태 유지
- 사다리 저단에서 뛰어내림 금지
- 사다리 발판의 물기 제거 후 등주 및 우천이 심할 경우 작업 중지

오늘 아침도 작업 현장에 도착하자마자 어김없이 날아온 센터장의 문자 한 통. 김대리의 입가에 슬며시 미소가 피어 오른다. “회사가 그만큼 생각해주니 기분이 좋죠. 갑자기 강풍이 불어오는 날이나 폭설이 내리는 날이면 나도 모르게 당황하게 되는데 그때마다 잘 대처할 수 있도록 문자를 보내주니 새겨서 읽게 되고 도움이 많이 돼요.”

KT는 각 기관장이 매일 아침 혹은 필요할 때마다 수시로 현장 직원에게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Safety Message」를 보낸다. 태풍, 대설, 폭우, 한파 등 상황 유형에 따른 예시 문안이 매뉴얼화되어 있어 현장의 근로자들은 갑작스러운 상황에서도 문자를 보고 가장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불시에 현장을 방문하여 직원들이 안전 작업을 하고 있는 지를 살핀다. 이 모두가 감시 차원이 아닌 소중한 개인의 안전, 그리고 회사의 안전을 위해서이다.

Safety Message

상황에 따라 매뉴얼화된 메시지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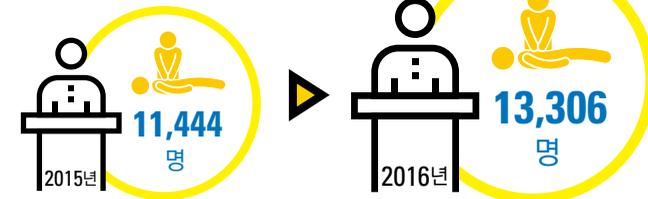
근로자들이 상황에 따른 적절한 대응을 하도록 도움을 준다

KT는 비단 현장 근로자 뿐만 아니라 「사무실 근무환경의 위험요소 제거」를 통한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도 소홀히 하지 않는다. 얼마 전에는 계단 턱이 높아 넘어짐 사고의 위험이 있는 곳에 추가 계단을 설치했다. 또한 대리석 계단으로 난 통행로 옆에 배수로가 있어 항상 물기가 많아 미끄러짐 사고의 위험율이 높은 곳에는 미끄럼 방지 테이프와 인조 카펫을 설치했다.

“혹시 사고가 발생할 지 모르는 현장에서는 신속한 응급조치가 사람의 생사를 가르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그렇기에 전직원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교육 및 전문가를 양성」하고 있죠. 지난 해에는 13,306명이 교육을 받았고 올해는 600명의 심폐소생술 전문가가 탄생하게 됩니다.”

전 직원 심폐소생술 교육 및 전문가 양성

▼ 심폐소생술 교육 참가인원



▲ 전 직원 심폐소생술 지속시행 (2017년 6월 ~10월)



▲ 달서지사 밀폐공간 훈련중 심정지 직원 발생, 훈련에 참가한 직원들의 적극적인 심폐소생술 시행으로 인명 피해 예방

자녀양육 채무 스트레스까지?

고민이여 안녕, 해아림 심리상담센터

아침 출근 길, 학교 갈 시간이 코 앞임에도 불구하고 늦잠에 빠져 있는 아들 녀석을 보니 울화가 치민다. 성적은 둘째치고 성실하게 학교 생활이라도 했으면 하는데 도대체 그 속을 알 수가 없다.

언제부터인가, 아들과의 하루 대화는 길어야 열 문장이 넘지 않는 듯 하다. ‘무슨 불만이 있는 건지, 혹시 나쁜 아이들이랑 어울리는 건 아닐까’ 이런 저런 생각에 일이 통손에 잡히지 않는다.

「KT그룹 해아림 심리상담센터」는 이러한 누구에게도 쉽게 털어내 보이지 못하는 가족 이야기부터 심지어 채무 관계의 고민까지 상담 받을 수 있는 곳이다. 비단 직원 뿐 아니라 직계 가족의 이용도 가능하다.

“예전에는 해아림 센터를 이용하는 직원의 수가 많지 않았어요. 그런데 센터의 감성적인 홍보와 상담자의 철저한 비밀보호, 그리고 업무 스트레스는 물론 인간관계, 자녀 양육, 채무 관계까지도 시원하게 들어주고 대책까지 제시해준다고 입 소문이 나면서 올해만 해도 2천 500명 정도가 해아림 센터에서 상담을 받았다고 합니다.”

해아림 심리상담센터 운영

KT그룹 사내 CARE 대표 브랜드 “해아림 심리상담센터”

<p>Single KT 구현 </p> <p>· KT임직원, 직계가족 및 그룹사 임직원까지 심리상담 케어 확대</p>	<p>안전한 직장문화 선도 </p> <p>· 정기 스트레스 검사, 위기직원 케어, 심리상담 교육 등으로 안전문화 선도</p>	<p>조직 활성화 견인 </p> <p>· 개인상담, 팀상담, 힐링캠프를 통해 팀웍 향상 및 개인과 조직의 성장 견인</p>
--	---	--

또한 산업재해에 취약한 부서나 콜센터 등 감정노동근로자를 대상으로는 팀 상담이나 힐링캠프 운영 등 조금 더 세심한 지원을 하고 있다. 이러한 해아림 센터의 활성화로 콜센터 직원의 이직율이 급감하는 등 긍정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다.

현재 KT는 지금까지의 안전보건 활동에 안주하지 않고 또 다른 준비에 여념이 없다. 통신업계 최초로 공생협력 프로그램에 참여해 협력업체의 안전보건 강화 지원을 통한 상생 발전 프로그램을 준비 중이다. 더불어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있는 KT 안전수준의 재평가 및 이미지 쇄신을 위해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 인정을 추진하고 있다. 역사의 모퉁이마다 변혁의 시대를 주도하며 대한민국 통신의 역사를 써 온 KT. 이제 안전문화를 이끌어가는 Global 1등 KT의 실현을 위해 힘차게 한 발자국씩 나아가갈 것이다.

Safety Interview

안전이 습관이 될 수 있도록 반복적인 교육이 중요하다



무엇보다 평상시에도 안전에 대한 끈을 놓지 않고 안전사각지대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해소하고 현장에서는 안전지침을 철저히 이행하는 등 기본에 충실한 안전활동이 습관처럼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문병연

울산지사 CS부 부장

가장 많은 사고가 통신후작업을 하면서 발생합니다. 그것도 비 오는 날에 말이죠. 모두가 알고 있고 또 충분히 예방할 수 있음에도 ‘설마 나에게’ ‘매일 하던 일인데’ ‘금방 끝나야지’ 하는 방심이 사고로 이어지곤 합니다. 그렇기에 생활 속에서 안전이 습관이 될 수 있도록 반복적인 교육이 필요합니다.

KT 안전관리의 가장 큰 장점이 바로 교육입니다. 기관장은 물론 관리감독자 그리고 전직원을 대상으로 일년 내내 다양한 프로그램의 안전교육이 이루어집니다. 매일 아침 현장 직원에게 보내는 Safety Message도 매우 효과적입니다. 그 날, 그 날에 따른 안전 유의 사항을 전달하면서 개인적인 교감도 함께 이루어지거든요. 무엇보다 개인의 안전을 스스로 잘 지키는 것이 소중한 가정을 지키는 기본이 됨을 항상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밀폐공간인 맨홀이나 고공시설물 점검 작업을 할 때의 사고발생은 거의 없습니다. 유해가스측정기나 드론 등의 기계를 활용해 원천적으로 위험요소를 인지하고 작업이 이루어지기 때문이죠. 앞으로 점점 위험작업의 경우, 가능한 사람이 하지 않고 첨단기계가 하게 될 것입니다.



한 눈에 보는 '(주)KT'

KT는 '안전문화를 선도하는 Global 1등 KT 실현'을 비전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사람과 사람을 잇는 통신라인 개통 및 A/S 업무로 매일 위험한 통신주 작업, 맨홀 작업, 차량 운행 등이 이루어져 산업재해가 좀체 줄어들지 않았다. 이에 KT는 2017년을 산업재해 발생 50% 획기적 감소의 해로 설정하고 기관장은 물론 전직원을 대상으로 입체적인 안전교육과 위험작업 근로자의 집중 안전관리로 사내에 새로운 안전바람을 일으키고 있다. 또한 통신업계 최초 공생협력 프로그램 참여와 전사업장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 인정을 추진하고 있다.



안전점검의 날

매월 4일 전국 218개 KT 지점에서 이뤄지는 안전교육행사



안전수칙 카드 뉴스

현장 사고 위험률이 높은 근로자들에게 현장에 나가기 전 상기



안전보건공단 온라인 안전교육

전직원을 대상으로 안전보건공단 온라인 안전교육 실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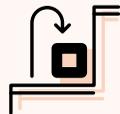
일 년 내내 다양한 안전교육

일 년 내내 전직원을 대상으로 이뤄지는 다양한 안전교육 프로그램



Safety Message

상황 유형에 따른 매뉴얼화된 문안 문자를 보고 적절한 대응



추가 계단설치

계단 턱이 높아 넘어짐 사고의 위험이 있는 곳에 추가 계단을 설치



미끄럼 방지 장치

물기가 많은 곳에 미끄럼 방지 테이프, 인조 카펫을 설치



심폐소생술 교육, 전문가 양성

작년 13,306명이 교육수로, 올해 심폐소생술 전문가 600명 탄생



함께하는 안전
문화가 되자



안전에는 너와 내가 따로 없다!

지속가능한 경영의 핵심요소는 바로 안전

여기는, 스마트 안전연구소

자동차 범퍼부터 보닛까지 검은 덮개로 모습을 숨긴 채 거리를 달리는 자동차들. 현대기아 자동차의 브레인이라 불리는 남양연구소 부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풍경이다. 서울 여의도 크기의 1.2배에 달하는 남양연구소는 현대기아자동차의 신차 설계, 개발을 비롯한 자동차에 대한 각종 연구와 시험이 이루어지는 곳이다. 그만큼 최첨단 기계와 복잡한 시험장치와 연구설비는 물론 끊임없이 이루어지는 자동차 주행 테스트로 자동차 운행 사고 등 그 어느 곳보다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가 곳곳에 도사리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양연구소는 각 센터별 안전조직 구축 및 자율안전관리 운영의 내실화는 물론 안전보건공단의 협력업체 공생협력 프로그램 기술지도 등을 통한 위험성 평가 지원을 꾸준히 펼쳐 지난 2013년부터 2016년까지 4년연속 안전보건 공생협력 프로그램 평가 A등급을 취득했으며, 올해로 5년 연속의 대기록 달성을 앞두고 있다.



✦ Safety Story

현대자동차(주) 남양연구소

📅 설립일	1975년 : 울산기술센터 R&D 시초, 1995년 : 남양연구소
📍 본사 소재지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현대연구소로 150
👥 근무인원	12,000명
🏠 규모	3,470,000㎡ (105만평)



안전을 연구하는 안전연구소?

고객의 안전을 위해 자동차의 안전이 시작되는 곳

오늘따라 유난히 새벽 일찍 잠에서 깨어난 김 책임. 세수를 하고 뿌연게 김이 서린 거울을 한 손으로 쓰윽 닦아내니 살짝 흥분된 얼굴이 눈에 들어온다. 바로 오늘이 몇 달을 밤낮없이 매달리며 고생한 새로운 자동차의 운행 테스트를 하는 날이기 때문이다. 출근 길, 눈을 들어 올려다 본 가을 하늘은 더 없이 높고 푸르다.

‘테스트 하기에는 정말, 좋은 날씨로군.’ 점심을 먹고 드디어 주행시험을 위한 출발 라인에 섰다. 익숙한 손놀림으로 시동을 켜다. “좋아. 시동도 아주 부드럽게 걸리고, 심장소리도 아주 마음에 들어. 이제 본격적으로 시험테스트를 진행해 볼까?” 김 책임은 액셀레이터에 서서히 힘을 주기 시작한다. 차량의 극한 테스트를 진행하여 그 동안 연구개발했던 모든 성과를 주행시험으로 알아볼 수 있는 바로 그 순간이다.

바람을 가르며 엄청난 속도로 달리는 자동차. 그 때였다. 갑자기 시야에 시커먼 무언가가 툭 튀어 오른다. “으악! 이게 뭐야. 안~돼” 간발의 차이로 비켜간 것은 바로 야생 고라니 한 마리. 커다란 몸집의 그 녀석과 부딪쳤더라면, 정말 생각만으로 아찔해진다.

“실제로 주행시험장에서 위험한 순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운행 중에 야생 고라

니를 비롯한 동물들이 드넓은 주행시험장으로 불쑥 뛰어들어 본능적으로 피하려다 보면 사고로 이어지죠”

그래서 남양연구소에는 야생동물 포획단 등을 꾸려 정기적으로 포획하는가 하면, 야생동물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방지망도 설치했다. 이러한 야생동물 뿐 아니라 실제로 남양연구소 총 면적의 약 70%를 차지하는 주행시험장은 차량의 고속 주행 및 다양한 환경조건에서의 시험과 자율주행 시험 등이 이루어져 안전 사고의 위험성이 크다고 볼 수 있다.

비단 주행시험장 뿐 아니라 시험차량의 외부운행도 수시로 이루어지기에 교통안전 캠페인을 강화하여 교통사고 Zero를 목표로 다양한 사고예방 활동을 펼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지난 2016년 화성서부경찰서와 맺은 「안매켜소 운동」 협약식으로 안전벨트 매기, 주간 전조등 및 방향 지시등 켜기를 철저히 이행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시험차 운전자의 졸음운전 예방 교육과 휴대폰 사용 금지 캠페인도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세계 최고의 연구소라는 명성만큼 협력업체와 함께 하는 최고의 안전관리 시스템

남양연구소는 현대기아자동차 기술개발의 본산이자 두뇌라고 할 수 있다. 약 100만평에 달하는 규모의 남양연구소는 설계와 디자인, 파워트레인 등 업무특성에 따라 지역을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차량의 실제 주행테스트를 위한 주행시험장으로 이루어져 있다.

특히 최첨단 기술의 집약체인 자동차를 개발하고 생산하는 곳이니만큼 각 사업부별 위험요소와 관련 연구장비시설도 곳곳에 존재해 안전사고의 위험에서 100% 안전한 지역이 있는 것은 아니다.

“엔진 및 변속기 성능 테스트에는 화재나 폭발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죠. 수소나 LPG, LNG 가스시설도 있고 로봇, 도장, 용접 설비를 비롯한 롤러, 리프트, 와이어, 크

레인, 프레스 등 각종 위험 기계들도 준비하고요. 하지만 세계적인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연구소이니만큼 철저한 안전사고 예방시스템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자동차를 연구 개발하는 세계 최고의 연구소라는 명성만큼이나 안전보건경영에 있어 선두적인 위치로 이미 2012년 OHSAS18001 인증, KOSHA18001 인증, 위험성평가 시범 인증을 받은 남양연구소. 하지만 과거 4-5년 전만해도 연구소를 포함한 그룹사에는 크고 작은 안전사고가 종종 발생하곤 했다. 이에 그룹은 향후 기업의 지속가능성은 안전보건경영에 있다고 판단하고 각 사별 안전보건경영 강화에 나섰다. 이에 남양연구소도 지난 2012년 11월 연구개발본부 차원의 안전보건경영방침을 발표하고 이를 근간으로 각각 업종의 특성이 다른 사업부에서도 자체 안전보건경영방침을 수립하여 체계적인 자율안전관리 시스템으로 관리하고 있다. 또한 작업 현장에서 꼭 지켜야 할 「9대 안전 Golden Rules」을 정하고 이를 준수하기 위한 교육과 이행여부의 점검을 수시로 하고 있으며, 안전 사각지대 제로화를 위한 위험성 평가 활동을 비롯한 아차사고 발굴, 자체 안전진단, 경영층 주관 점검 등을 입체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안전보건 관리 현황 - 시설·설비 운영관리

철저한 안전사고 예방시스템으로 시설 관리, 시스템 운영/제도 수립, 비상 대응

시설 관리		시스템 운영 / 제도 수립			비상 대응		
							
안전	보건	가스	화학	소방	진압	피난	방재
승강기, 리프트, 크레인 등 1,7000대	휴게 시설, 운동기구 등 근골격계질환 예방기구 300대	가스총전소 약 100개소, 가스누출 감지기	보관소, 저장소(탱크), 주유 취급소 50개소	연기, 온도, 불꽃감지기 등 감지시설 18,000대	소화기, 소화전, 가스 진압 설비 등 소화시설 7,000대	유도등, 피난보조설비 6,000대, 피난보조기구 (1개/1인 =12,000대)	자체 소방대, 앰블런스 2대 운영

9대 안전 골든 룰(Golden Rules) 준수활동



교통사고 예방	떨어짐 사고 예방	끼임 사고 예방
1. 규정속도 준수 2. 안전벨트 매기 3. 앞지르기 금지	4. 안전보호구 착용 5. 떨어짐 방지 장치 설치 6. 작업 전 안전점검	7. 방호장치 해제금지 8. 하역운반시 신호수 배치 9. 안전플러그 확인

“최근에는 협력사에 대한 안전지원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함께 동반 성장해나가기에 협력사의 안전경영관리도 필수죠. 이에 총 23개에 달하는 공생협력 사업장을 연 2회 방문해 현장 위험요소를 발굴하고 위험성평가 신규기법 소개 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법정 관리 감독자교육 위탁교육 지원은 물론 심폐소생술 및 AED 교육 지원, 합동 소방 훈련도 하고 있고요.”

이러한 노력들은 어김없이 지표로 나타나 2013년부터 4년 연속 안전보건 공생협력 프로그램 평가 A등급을 취득, 올해 5년 연속 취득을 앞두고 있다.

한 번 배우면 알아서 척척척 전체 직원 12,000명 모두가 구급대원

“여보, 오늘은 일요일이니 일찍 퇴근하시죠?”, “응, 간단히 처리해야 할 일이 있어서요. 금방 마치고 올게요. 저녁에 가족 외식이라도 하게 맛집이나 검색해놔요.” 휴일에

출근하는 것이 어린 딸에게도 미안한 터라 송 책임은 딸을 힘껏 한 번 안아주고 문을 나선다. 며칠 동안의 프로젝트가 마무리 단계라서, 간단히 처리해야 될 일만 끝내면 될 것 같다. 사무실에 들어서니 때마침 김 책임이 같이 출근해, 서로 아침 인사를 나눈다.

컴퓨터를 켜고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본격적으로 집중을 하는 송 책임. 그런데 갑자기 온 몸에 식은 땀이 흐르며, 가슴을 쥐어짜듯 극심한 통증이 밀려온다. “앗! 책임님, 송 책임님.” 얼마나 흘렸을까, 눈을 뜨니 병원 응급실. 이내 가족 외식은 커녕 눈물 자국이 가득한 아내와 딸아이의 모습이 눈에 들어온다.

송 책임을 살린 건 바로 옆에서 같이 휴일 근무를 하던 김 책임이다. 갑자기 심근경색으로 쓰러진 송 책임을 매월 둘째주 화요일에 실시되는 ‘안전의 날’ 때 배운 심폐소생술로 응급처치를 한 것이다. 또한 교육을 통해 심장계세동기의 위치도 정확히 숙지하고 있어 큰 도움이 됐다.

“이러한 안전교육으로 남양연구소에 근무하는 전직원 12,000명이 모두 구급대원인 셈입니다. 나 스스로에게는 물론 우리 모두에게 꼭 필요한 교육임을 이제는 잘 알고 있죠.” 그래서일까, 매년 실시되는 「안전보건행사」와 매월 실시되는 「안전의 날 행사」의 직원 참여 만족도는 상당히 높다.

매년 안전보건 행사 실시

체험전시회	피난 훈련	안전 연극제	경진 대회	시상식
· CPR/금연 홍보 · 보호장비 전시회 · 이벤트/퀴즈 대회	· 화재 대피 방송 · 임직원 대피 훈련 · 소방 진압 훈련	· 안전교육 활성화 · 현장 안전관리 실태 · 안전의식 생활화	· 안전보건 경영방침 · 안전관리 개선실적 · 안전문화 정착/목표	· 개인유공자 시상 · 안전표어 시상 · 경진대회 시상
총 278명 참석 (경품지급/설문조사)	총 2,423명 참석 (피난시간 4:57 소요)	총 695명 참석 (7월 법정교육 이수)	5개 센터, 485명 참석 (파이롯트센터 외)	안전유공자 3명 경진대회 우승 3팀



▲ 화재발생 대비 종합 피난훈련



▲ 가스누출 대응훈련



▲ 자연재해발생 대비 비상훈련



▲ 밀폐공간 질식사고 대응훈련

남양연구소는 연구소에서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사고에 대한 예방활동으로 매년 전 건물에 대해 「화재발생 대비 종합 피난훈련」과 「위험물, 가스 누출 대응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이는 연구소 모든 건물과 직원이 참여하는 대대적인 훈련으로 현재 평균 대피 소요시간은 4분 30초. 향후 지속적인 훈련을 통해 그 시간을 줄이려 노력하고 있다. 이와 함께 2016년부터는 매년 발생이 증가하는 있는 지진 및 「자연재해로 인한 화재 비상 훈련」과 최근 이슈화 되고 있는 「밀폐공간 질식사고 대응훈련」을 추가로 실시하고 있다.

연구소의 아이덴티티를 살린 스마트 안전문화 캠페인

남양연구소는 보다 자율적이고 생활 속에 녹아 드는 안전문화 구축을 위해 보다 친근한 자체 「안전 캐릭터」를 개발하여 다양한 안전관련 활동에 활용하고 있다. 연구소

안전 캐릭터를 활용한 각종 콘텐츠

안전문화 구축을 위해 친근한 자체 안전 캐릭터를 개발하여 각종 콘텐츠로 제작하여 배포



▲ (좌측부터) R&D 안전 웹툰, 휴게실 콘텐츠, R&D 안전 포스터, 안전관리 홍보물(스마트폰 링)

의 안전 슬로건인 'SAFETY, SAY YES!'가 쓰인 보호구를 쓰고 연구원의 이미지를 반영한 동그란 안경을 쓴 귀여우면서도 푹푹한 모습의 안전 캐릭터는 직원들에게도 좋은 반응을 얻어 각종 화장실이나 휴게실 안전 관련 웹툰, 콘텐츠나 안전 포스터, 스마트폰 링 등으로 제작되어 배포되었다.

“예전에는 크고 작은 사고가 잦았던 주행시험장 주변에 보기 좋게 나무를 심어 가꾸었어요. 그런데 이러한 나무와 부딪치는 차량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죠. 그래서 오히려 사고의 완충 역할을 할 수 있는 모래를 깔면 어떨까라는 생각해서 안전 아이디어를 제안 했습니다.”

이러한 아이디어는 채택되어 현재 주행시험장 주변 곳곳에는 모래가 깔려있다. 또한 남양연구소는 안전에 관한 「포상제도」가 활성화 되어 있다. 지난 2002년부터 남양연구소는 안전관리 우수팀을 선정하여 포상을 진행해 왔는데 그간 약 40개팀이 산업재해 예방과, 자율안전보건 관리, 무재해 달성 등의 안전관리 우수팀으로 선정되어 약 3

천만원의 포상을 받았다. 또한 같은 기간 동안 약 60명의 근로자가 안전관리 유공자로 선정되어 대략 2천만원의 포상을 받았다. 이러한 무재해 포상제도나 안전 아이디어 공모전을 통한 포상제도는 모두 부회장상으로 수여되어 받는 팀이나 직원들의 자부심이 상당하다.

남양연구소의 안전보건경영 핵심은 ‘자율안전’이다. 넓은 대지 위에 각 사업부별로 서로 다른 성격의 연구 또는 시험이 이루어지기에 안전관리 강조 사항이 각기 다를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자율안전을 바탕으로 안전부문의 성과를 지표화 하여 관리하는 등의 활동도 진행한다.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차를 만들기 위해 구슬땀을 흘리는 현대자동차 남양연구소, ‘안전’에 대한 그 소중함과 가치를 누구보다 더 잘 알기에 안전보건경영에 대한 철저한 소신은 언제까지나 변함없이 지켜질 것이다.



Safety Interview

기획에 실패한 관리자는 용서할 수 있어도 안전에 실패한 관리자는 용서할 수 없다



안전관리에 있어 맥아더 장군의 명언을 예로 들어 말하려 합니다. “기획에 실패한 관리자는 용서할 수 있어도, 안전에 실패한 관리자는 용서할 수 없다” 라고 말이죠. 이는 “작전에 실패한 지휘관은 용서해도, 경계에 실패한 지휘관은 용서 할 수 없다” 는 말에서 따온 것입니다. 저 또한 산업안전기사 자격증 보유자입니다. 그만큼 안전에 대한 관심이 많고, 또 안전이아말로 회사를 경영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안전환경팀에 힘을 많이 실어주고 있고요.

불과 4~5년 전만해도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안전보건 경영을 기업의 핵심요소로 정하고 본사 기획실내에 전 그룹사의 안전을 컨트롤하는 컨트롤 타워가 만들어지면서 매년 2회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 연구소도 정기적으로 점검을 받고 있죠. 이 결과를 가지고 안전 워크숍을 통해 잘 하고 있는 점과 그렇지 못한 점에 대해 토론하고 대책을 함께 만들어 갑니다.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 전사적으로 안전관리에 대한 인식이 많이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현재 남양연구소는 안전보건경영 인증을 받았고, 이러한 시스템을 저희 연구소 자체의 안전보건 경영방침 안에서 관리 이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부 평가인 KPI 지수에 안전보건지수가 많이 반영되어

안전관련 사항에 따라 KPI 평가 지수가 달라지기에 더 엄격하게 사전 관리할 수 있는 구조적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월 2회 센터장급 안전협의체를 운영 및 정기적인 팀장급 안전교육도 실시하고 있지요.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안전관리 특히 협력업체의 안전 관리 책임 부분이 더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저희 남양연구소는 일찌감치 협력업체 공생협력 프로그램을 모범적으로 실천해 오고 있지만, 현재에 안주하지 않고 자사 수준의 안전보건 시스템을 갖출 수 있을 때까지 지속적인 자원을 펼칠 예정입니다.

김 태 석

연구개발지원사업부 전무



한 눈에 보는 '현대자동차(주) 남양연구소'

현대자동차 남양연구소는 자동차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볼 수 있는 현대자동차의 브레인 역할을 담당하는 곳이다. 신차 설계와 개발은 물론 각종 연구와 시험이 이루어지는 곳으로 그 어느 곳보다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가 곳곳에 도사리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지만 현대자동차 남양연구소는 각 센터별 철저한 안전조직망 구축 및 자율안전관리와 함께 협력업체 안전 시스템 지원으로 지난 2013년부터 2016년까지 4년 연속 안전보건 공생협력 프로그램 평가 A등급을 취득했으며, 올해로 5년 연속의 대기록 달성을 앞두고 있다. 또한 2013년에는 업종 최초 근로자 건강증진 활동 우수사업장으로 인증을 받았다.

 <p>교통사고 Zero 목표</p> <p>'안매커소' 운동, 시험차 운전자 졸음운전 예방, 휴대폰 사용 금지</p>	 <p>다양한 안전성 인증</p> <p>OHSAS18001, KOSHA18001, 위험성평가 시범 인증</p>	 <p>9대 안전 Golden Rules</p> <p>규정속도 지키기, 앞지르기 금지, 안전벨트 매기, 안전보호구 착용 등</p>
 <p>협력사 안전지원</p> <p>공생협력 사업장 연 2회 방문, 합동 소방훈련, AED 교육지원 등</p>	 <p>매년 안전보건행사 실시</p> <p>화재발생 대비 종합 피난훈련, 가스 누출 대응훈련 등</p>	 <p>안전보건 공생협력 프로그램</p> <p>2013년부터 4년 연속 안전보건 공생협력 프로그램 평가 A등급 취득</p>
 <p>안전슬로건 SAFETY, SAY YES!</p> <p>스마트 안전문화 캠페인 : 슬로건, 안전캐릭터, 웹툰, 포스터, 스마트폰 링</p>	 <p>안전관리 포상제도</p> <p>'16에 발생한 넘어짐 사고 1건 이래로 현재까지 무재해 행진</p>	

함께하는 안전

문화가 되어


Pulmuone

이번이 5번째 신상품? 더 안전하게 더 편안하게 안전화가 일상화보다 편하네

바른먹거리 풀무원. 풀무원식품(주)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다. 유기농 로하스 이웃사랑 생명존중 등이 그것이다. 초심을 잃지 않고 '인간과 자연을 함께 사랑하는 LOHAS 기업'이라는 가치를 꾸준히 추구해온 풀무원은 그 결과 한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기업에 10년 연속 선정되기도 했다. 이러한 풀무원이 직원을 위한 안전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있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듯 보인다. 리더의 안전 마인드가 곧 사업장 안전관리의 수준이라고 강조하는 풀무원은 판촉사원의 안전관리에 많은 노력을 기울인다. 안전 보호 장비의 지속적인 보완 개발을 비롯한 SNS 활용, 감정노동의 고단함을 위한 마인드 교육 등 보다 친근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활용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



+ Safety Story

풀무원식품(주)

- 📅 설립일 | 1981년
- 📍 본사 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광평로 280
- 👥 판촉 인원수 | 1,650명



판촉 직원들의 안전은 내가 책임진다 모든 영업조직이 안전점검 담당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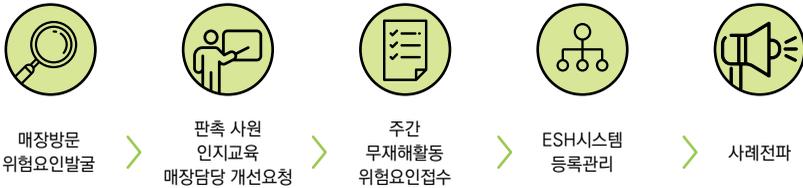
“역시 담당님이 최고야.”, “땀가이버가 따로 없다니깐. 우리 신랑보다 낫다.”, “맞아, 맞아.” 서로 마주보고 맞장구를 치며 활짝 웃는 판촉 직원들의 즐거운 웃음소리가 창고를 가득 메운다. 몇 주전부터 냉동 창고 컨트럴 박스의 날카로운 부분이 판촉 직원들이 오갈 때마다 살짝 살짝 몸에 스쳐 여간 불편한 것이 아니었다. 큰 상처는 나지 않았지만, 어제 또 판촉 사원의 팔뚝을 스치는 바람에 생채기가 났다.

“이젠 괜찮으실 거예요. 베일 염려없게 스티로폼으로 단단하게 고정했으니까요.” 직접 조치를 취한 영업담당은 작업을 마치자마자 혹시나 또 다른 안전사고를 일으킬 만한 원인은 없는 지 구석구석 점검하기 시작한다. 이러한 점검 활동은 비단 영업담당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다. 「영업사원 주간무재해활동」을 비롯한 「대한재해예방기술 방문점검」, 「BP사 합동점검」, 「안전담당자 매장방문점검」 등 관련 담당자들은 매장을 방문할 때마다 사고 위험요소를 사전에 체크하고 판촉사원에게 관련 교육은 물론 매장 측에 그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 매장 냉장고 출입문 손잡이 파손으로 인한 절상
- 화물 엘리베이터 앞 바닥 패임으로 인한 넘어짐
- 냉동 창고내 바닥에 방치된 얼음으로 인한 넘어짐
- 창고 렉 이탈로 인한 떨어짐
- 창고 턱 높이로 인한 넘어짐
- 매장내 후방 경사로 미끄러짐 사고 위험 등이 그것이다. 또한 이렇게 파악된 매장 안전 위험요인들의 예방조치는 아무리 작은 사안이라 할지라도 사내 ESH 시스템에 등록하여 사례를 공유하고 있다.

이러한 적극적인 영업사원들의 안전관리 점검은 나아가 유통 매장의 변화를 이끌어내기도 한다. 실제 홈플러스의 경우는 전기선의 피복이 벗겨졌다는 건의에 대응해 판촉 직원들의 누전으로 인한 사고 예방을 위해 특수 코일 전선으로 교체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기도 했다.

사고위험요인 제거활동 진행과정



사고 위험요인 제거활동

연도	주간 무재해 활동	대한재해 예방기술	합동점검	합계	매장 개선
2016년	1,668건	19건	41건	1,728건	74건
2017년	1,063건	25건	11건	1,099건	42건

* 2017년은 6월까지의 실적기준으로 **128%** 상승 
 * 사고 위험요인 제거활동은 "위험성평가"의 기준 자료로 활용

환경안전경영

풀무원은 제조, 물류, 서비스 등 모든 분야에서 환경안전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제조



- 제조/생산
- KRAS 기반 위험성평가
- KOSHA/OHSAS 18001 인증



물류



- 물류/배송
- KRAS 기반 위험성평가
- 협력업체 안전관리
- 차량 안전관리



서비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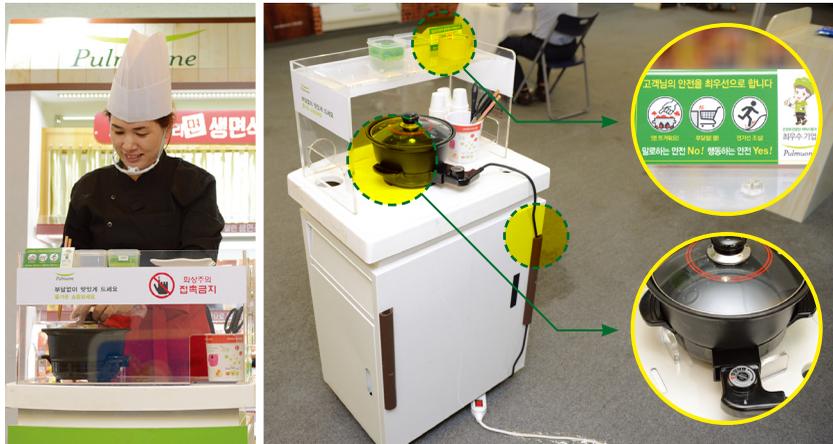
- 위험성평가
- 작업유형별 안전수칙
- 근골격계 질환 관리
- 협력업체 안전관리





▲ 풀무원 매장 전경

▼ 시식대 운영을 위한 안전수칙과 안전장치



조심해! 쇼핑카트가 부딪혀!

조리기구 고정 장치가 있어 안전해요

풀무원식품(주)은 1981년 풀무원유기식품 설립을 시작으로 이웃사랑과 생명존중 정신에 입각한 기업경영을 실현해오고 있다. 인간과 자연을 함께 사랑하는 로하스 기업을 미션으로 하기에 그 어느 기업보다 환경안전경영에 대한 관심이 높다. 리더의 안전 마인드가 곧 사업장의 안전관리 수준이 된다고 생각하기에 책상에 앉아서 문제를 파악하는 것이 아닌 직접 현장에 수시로 나가 유해하거나 위험한 요인을 사전에 파악하여 예방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활동을 통해 작성된 안전매뉴얼을 구축하고 반복적인 교육을 통하여 직원 모두의 「안전 습관화 문화」를 만들어 가고 있는 것이다.

“아무리 회사에 좋은 복지 제도가 있다고 해도 단, 한 건의 안전사고로 인해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는 것이 회사의 마인드죠. 조직원의 안전이 곧 회사의 안전이기에 조금 귀찮더라도 매일 확인하고 점검할 것을 강조합니다. 잠깐의 안일함이 바로 사고와 연결되니까요.”

특히 매장 현장에서 일하는 판촉 사원의 안전 사고는 고객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에 더 세심한 교육과 사전 점검을 행하고 있다. 실제로 대형 마트에서는 뜨거운 음식을 요리하는 시식대에 쇼핑 카트가 부딪치며 화상 사고가 일어나기도 한다. 화상사고의 경우는 그 후유증이 심각하기에 풀무원식품에서는 가장 큰 사고로 인식하고 있다. 실제 초창기 판촉 활동 중에 화상 사고가 종종 발생하기도 했으나, 판촉 사원 안전수칙을 만든 이후부터는 단 한 건의 화상사고도 발생하지 않는 성과를 거두었다.

“작은 시식대 하나를 운영하기 위한 안전수칙만도 20여 가지나 됩니다. 시식대 주변의 전선 정리는 기본이고 요리 형태에 따라 아크릴 보호대도 특성에 맞추어 별도로 2개를 사용하고요. 특히 뜨거운 국물을 끓이는 시식대의 경우는 조리기구를 고정하는 장치를 하여 충격에도 솔이 넘어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러한 안전수칙은 최대한 구체적인 항목으로 세세하게 마련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평균 연령 51세의 판촉 사원

건강한 식품을 건강하게 판매하도록 하자

풀무원식품의 판촉 사원은 1,650여 명. 각 유통사 매장에 투입되어 풀무원 제품의 진열과 시식행사를 담당하고 있다. 과거 사업 초창기에는 판촉 사원들이 전선에 걸려 넘어지거나 적재된 물건이 떨어지는 낙하사고, 매대 사이에 손이 끼는 협착사고, 끓이는 제품 시연으로 인한 화상사고가 많았으나 사고 예방대책 안전수칙이 마련된 이후부터는 이러한 사고는 눈에 띄게 줄었다.

최근에는 근골격계 질환을 비롯한 개인 건강관리에 대한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기획하여 운영하고 있다. 또한 작업유형에 맞는 안전용품도 지급하고 지속적으로 그 기능을 개선 관리하고 있다. 관절이 약한 중년 여성에게는 손목, 팔꿈치, 허리 보호대는 물론 풀무원 전용 안전장갑, 절상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갈날이 노출되어 있는 문구용 커터칼의 사용을 절대 금지하고 안전커터를 지급해 사용하고 있다.

특히 하루 종일 서서 근무하는 판촉 사원의 경우는 다리의 피로도가 상당하므로 이를 줄이기 위한 논슬립 경량 안전화를 지급하고 있다. 무게 780g의 경량 안전화의 경우는 풀무원만의 자랑거리이기도 하다. 풀무원의 자체 주문 제작으로 만들어지는 안전화는 논슬립 1등급 인증 안전화로 신발 속 인솔(갈창)을 시중 판매 제품보다 더 두껍게 만들어 족저근막염 예방은 물론 착용감도 탁월한 것이 특징이다.

“예전에는 안전화가 무거워 불편했는데 이제는 일상화처럼 가볍고 편해요.”, “매번 불편한 점을 5차례나 개선해 안전화가 점점 진화하고 있어요.”, “두툼한 갈창에 우리 풀무원 회사 로고가 인쇄되어 있어 자랑스럽죠.”, “작년에는 한 판촉 사원이 후방에서 작업하는 지게차를 못 봐서 지게차 바퀴에 발을 밟았는데 안전화를 신고 있었기에 전혀 다치지 않았어요. 생각만해도 아찔하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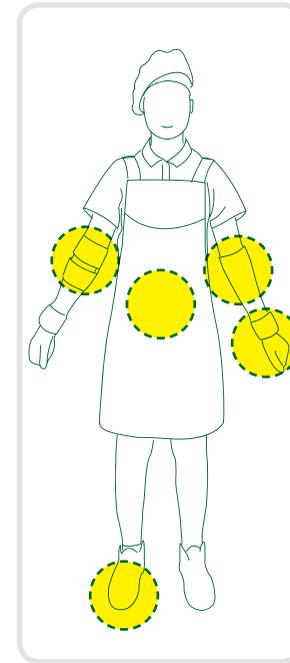
안전을 위해 반드시 착용해야 하는 보호구가, 편리함까지 더해 판촉 사원들의 만족도는 상당히 높다. 적극적으로 그 기능 개선에 대한 아이디어까지 내기도 한다.

풀무원 판촉 사원 안전용품

풀무원은 판촉 사원에게 작업 유형에 맞는 안전용품을 지급하며, 지속적으로 용품을 개선 및 관리하고 있다.



▲ 팔목 보호대, 허리 보호대



▲ 안전장갑, 팔 보호대



▲ 논슬립 경량 안전화 : 무게변화 (1,020g → 780g) 재질 개선, 두터운 갈창





제로 언제 어디서나 틈나는 대로 쉽게 따라 할 수 있도록 「짹짹 스트레칭 동영상」을 만들어 배포하고 있기도 하다.

“띠링~ 아침에 스트레칭하고 시작하셨나요?”, “띠링~ 오후 5시까지 안전용품 착용한 모습의 사진을 촬영하여 전송하세요.”, “띠링~ 시식대 주변의 전선줄 정리는 하셨죠?”, “띠링~ 풀무원 안전 캠페인 중 안전구호는 무엇일까요?”

업무 중에 불시에 날아오는 휴대폰 문자 메시지이다. 풀무원은 자칫 소홀하기 쉬운 일상적인 안전 준수를 위해 수시로 「일일 안전문자」, 「안전 준수 불시점검」, 「안전 퀴즈」 등을 보내고 있다. 그리고 이에 대응하는 개인별 실천 준수여부를 집계해 실적을 공유하고 미흡하면 개선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관측 사원의 모습과 비슷한 친근한 캐릭터를 만들어 각종 안전 관련 홍보물을 제작하여 교육 및 행사에 활용하고 있다. 지난 2015년에는 관측 사원을 대상으로 한 안전구호 공모전을 펼쳐 “말로는 안전 NO! 행동하는 안전 YES!”를 캠페인 구호로 선정하여 대대적인 안전 캠페인을 실시하기도 하는 등 안전교육에 있어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풀무원 관측 사원의 평균 연령은 51세이다. 아무래도 팔 다리 관절이 육신거리기 시작하는 중년 여성들이 주를 이루기 때문에 근골격계 질환 예방을 위한 스트레칭이 그 어느 사업장보다 중요하다. 이에 집체 교육시 스트레칭은 물론 하루를 시작할 때 기본 스트레칭은 반드시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위한 수시 교육은 물론 매니저가 현장을 방문할 때마다 스트레칭 사진을 촬영하기도 한다. 또한 실

언제 어떤 돌발 사고에도 당황하지 말고, 1minute 4 safety를 통해 사전 점검에 또 점검

“지금 여러분이 있는 이 곳의 비상구는 왼쪽 상단에 있습니다.”, “이 곳에는 어떤 사고의 위험요소가 있을까요?”, “만약 사고가 나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제일 먼저 비상연락은 어디에 해야 할까요?”

안전교육 현장일까? 아니다. 풀무원에서는 모든 교육이나 회의가 이루어질 때 단, 1분 동안이라도 안전에 대해 생각하자는 취지에서 「1 minute 4 safety」를 실시하고 있다. 이 시간에는 기본적인 안전에 대한 내용 공유는 물론 안전 관련 동영상 시청도 이루어진다. 이러한 관련 자료나 동영상은 안전보건공단 사이트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가장 다양한 자료들을 체계적으로 찾아볼 수 있기 때문이다.

“각종 안전보건 관련 교육은 물론 매뉴얼을 작성할 때도 가장 먼저 찾게 되는 것이 안전보건공단 사이트예요. 최신 사례는 물론 각종 통계 정보까지 얻을 수 있어 정말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관측 사원 안전관리 담당자 이미경 매니저의 말이다.

앞으로 풀무원은 지속적인 캠페인 활동, 과학적인 체계로 안전관리의 프로세스화를 실천할 계획이다. 현장에서는 유통 매장과의 협업을 통해 관측 사원의 근무 환경과 보호 장비를 더 안전하고, 편안하도록 꾸준히 업그레이드해 나갈 것이다. 바른 먹거리 풀무원, 인간과 자연을 사랑하는 로하스 기업 이미지에 걸맞게 풀무원은 철저한 사전적 안전관리로 관측 사원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무재해 일터로 가꾸어 나갈 것이다.



장봉찬 팀장
관측운영팀 식품영업본부

Safety Interview

풀무원은 리더부터가 안전경영을 최우선 핵심가치로 두고 있습니다. 안전법규의 준수는 물론 각 업무별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철저히 지키면 모든 안전 사고는 예방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함께 비상사태시 즉각적 대응이 가능하도록 모든 발생 가능 유형과 시나리오를 준비하고, 교육 프로그램과 관리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은 감정노동에 대한 마인드 교육 프로그램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충북 과산에 있는 직원 연수원 '풀무원 로하스 아카데미'에서 휴대폰을 끄고, 좋은 식단의 식사를 합니다. 또 쉬고 산책하고 명상을 하는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 눈에 보는 '풀무원식품(주)'

풀무원은 '바른 먹거리'와 더불어 '인간과 자연을 함께 사랑하는 로하스 기업'을 실천하고 있다. 이러한 초심을 잃지 않는 정직한 경영으로 풀무원은 한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기업에 10년 연속 선정, 대한민국 지속가능성지수(KSI) 7년 연속 종합식품부문 1위에 올랐으며, 대한민국 좋은 기업상도 3년 연속 수상하였다. 또한 CSV(공유가치창출) 개념을 창안한 하버드대 마이클 포터 교수가 선정하는 제1회 CSV 포터상을 수상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풀무원의 대내외적인 호평의 기본 바탕에는 안전경영을 최우선시 하는 리더의 안전 마인드가 있기 때문이다.



불안전한 근무환경 개선

근무장소 위험요인 발굴,
매장 협업시설/설비 개선



근무 여건 개선

안전용품 지급/지속 개선
(직무/업무형태별 용품 개선)



안전의식 증대

안전 캠페인 확대 실시
(교육, 홍보, 이벤트, 사례 전파)



협력사의 안전 역량

동등 수준 공동 안전관리 활동
(월간 안전협의체 구축)



판촉 사원 고령화

건강관리 등 자가진단 강화,
스트레칭 생활화



메시지 안전 프로그램

'일일 안전문자', '안전 준수 불시 점검',
'안전 퀴즈' 상시적 전송



사고 위험요인 제거활동

2017년 6월까지 실적 기준
128% 상승



영업사원 = 안전점검 담당자

모든 영업사원은 매장 위험요소
파악, 판촉 사원 안전교육 실시

Pulmuone
풀무원

함께하는 안전

문화가 되어

LOTTE
DEPARTMENT STORE

갑질고객? 더 이상 무서워하기 있기, 없기

사회적으로 갑질 논란이 뜨겁다. 백화점 직원의 무릎을 꿇리고 폭언을 퍼부은 고객 모녀, 본사가 대리점을 상대로 행하는 부당행위, 심지어 지성의 공간이라는 대학내 교수의 갑질까지. 오죽하면 신 정부가 고질적인 갑을관계 분야에서의 각종 불공정 행위와 갑질 근절을 추진하기로 했을까 싶다. 이러한 갑질이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는 곳이 바로 백화점이다. 백화점에서 일하는 직원 모두가 감정근로자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에 롯데백화점 광주점은 직원과 고객을 위한 철저한 안전관리는 물론 감정근로자를 위한 특화된 보호 시스템으로 1998년 회사 설립부터 현재까지 무재해 청정지역, 모두가 웃는 행복한 일터를 유지해가고 있다.



+ Safety Story

롯데백화점 광주점

 설립일		1998년 9월 18일
 소재지		광주광역시 동구 독립로 268
 근로자수		1,600명 (협력사 1,300명 포함)
 매장면적		3,246.3㎡

골든타임을 사수하라!

화재신고는 0119, 안전사고는 0112

“언니, 언니네 겨울 신상품 들어 왔는데... 오늘 매출, 기대 좀 되겠어요.”, “응. 이번엔 디자인도 좋아서 나도 기대가 되네.” 가을도 없이 겨울인가, 갑자기 추워진 날씨 탓에 작년보다 일찍 겨울 신상품이 들어왔다. 손님들의 반응도 좋아 덩달아 일할 맛이 나는 요즘이다.

‘그런데 요즘 왜 이렇게 손 발이 저리지? 추워서 그런가?’ 신상품을 정리하면서 김 주임은 연신 손을 비비고 마사지를 한다. 두툼한 겨울 외투가 가득 담긴 박스를 들고 일어서려는 순간, 갑자기 눈 앞이 캄캄해진다.

“언니! 왜 그래요? 언니!” 갑자기 쓰러진 김 주임을 보고 달려온 옆 매장의 은지씨. 지체 없이 전화기를 들고 ‘0112’를 누른다. 몇 분 지나지 않아 안전지원실과 의무실 보건관리자가 달려와 응급조치를 취하고 병원으로 이송된 김 주임. 뇌출혈이다. 다행히 골든타임 안에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가 취해져 간단한 수술로 완쾌될 수 있었다.

롯데백화점 광주점은 항상 많은 직원과 고객으로 붐비는 곳이다. 직원들의 안전은 물론 고객의 안전까지 동시에 고려되어야 한다. 종종 고객이 다치거나 쓰러지는 안전

사고가 발생하기도 한다. 이에 광주점은 보다 신속한 사고 접수와 대응을 위해 화재신고는 '0119', 안전사고 '0112'의 응급사고 사내 신고번호를 운영하고 있다. 일단 신고가 접수되면 안전관리팀과 의무실, 사안에 따라 인근 동부소방서에까지 비상 연락망이 가동되어 초기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비상 시스템을 구축했다.

위험요소는 미리 미리 싸악~

작은 부주의가 직원과 고객의 안전까지 위협하기에

대한민국 No.1을 넘어 아시아를 대표하는 글로벌 초일류 유통기업으로 1979년 본점을 개점한 롯데백화점은 쾌적한 쇼핑환경, 고품질 상품과 고품격 서비스, 선진 유통 시스템으로 대한민국 유통산업의 발전을 이끌어왔다. 광주점은 1998년 설립되어 전남 광주의 쇼핑메카로 꾸준히 성장해 오며 현재 협력사 직원 1,300명을 포함, 총 1,600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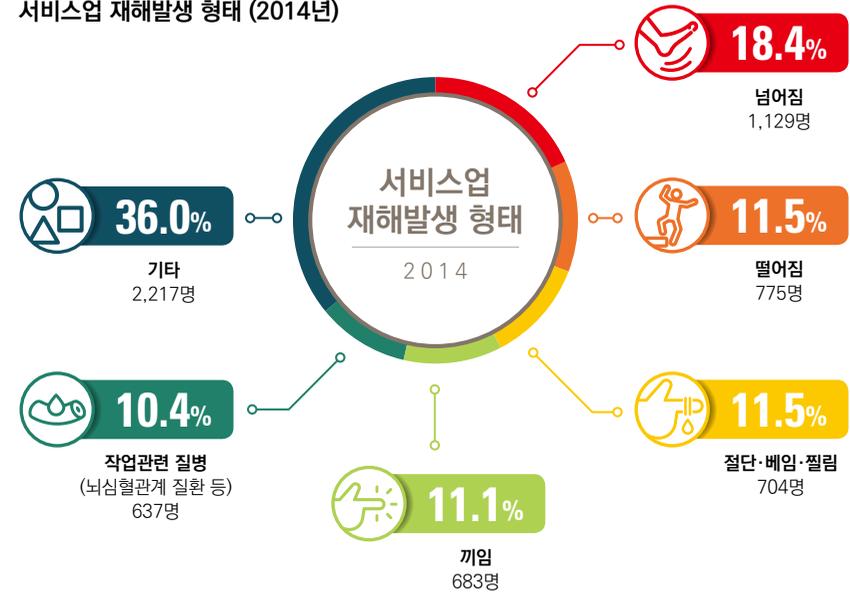
롯데백화점은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는 롯데'라는 기업의 안전 목표 아래 「안전경영 10계명」 선포, 안전실천의 생활화를 지향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광주점은 안전보건법규를 철저히 준수하는 기본에 충실한 안전활동과 최근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감정노동자 보호 프로그램의 강화, 협력사를 포함한 모든 근로자의 원활한 의사소통 체계 확립 등 안전경영을 위한 효율적인 시스템 운영으로 회사 설립 이래로 단 한 건의 산재 사고가 없어 더욱 눈길을 끈다.

“서비스업에서는 넘어짐이나 떨어짐 사고가 제일 많이 발생해요. 실제로 작년 타 지점에서는 보일러 누수 부위 물길 유도 작업을 하던 직원의 추락사고가 있었어요. 작업 전에 사다리 안전점검도 하지 않았고, A형 사다리를 H 사다리로 펼쳐서 작업을 한 거죠. 게다가 보호구도 쓰지 않아 더 피해가 컸습니다.”

이 사고 이후로 광주점의 시설안전팀 직원을 대상으로 한 작업 준수 안전교육은 더욱 강화되었다. 상단 작업 전, 철저한 주변환경 및 도구의 안전점검은 물론 보호구 착용,

서비스업 재해발생 형태 / 안전경영 10계명

서비스업 재해발생 형태 (2014년)



안전경영 10계명

01. 고객과 나, 동료의 안전은 그 어떤 것보다도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02. 피난동선 계단에 장애물이 없도록 관리하겠습니다.
03. 소화기, 소화전 등 안전시설물은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겠습니다.
04. 흡연 구역의 절대로 흡연하지 않겠습니다.
05. 커피포트 등 허가받지 않은 전열기기는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06. 창고, 휴게실 등 후방지역을 매장처럼 깨끗하게 관리하겠습니다.
07. 화재예방, 안전관리 교육훈련에 반드시 참석하겠습니다.
08. 안전관리 매뉴얼을 준수하고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여 섬세하게 점검하겠습니다.
09. 공사장은 항상 청결한 상태로 유지하고, 사고가 나지 않도록 관리하겠습니다.
10. 퇴근시 전기, 가스 등 안전사고 위험은 없는지 철저히 확인하겠습니다.



미끄럼 방지 사다리 사용, 사다리 취급 시 2인 1조로 넘어짐 방지 조치 등이 그것이다. 또한 각 작업 특성에 따라 작업의 경험과 숙련도가 높은 전담자를 지정해 신입 혹은 경험부족으로 인한 사고 발생을 미리 차단했다. 비단 광주점 뿐만 아니라 타 지역의 롯데백화점과도 안전사고 사례 등도 사내 네트워크를 통해 공유하여 사전예방활동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매장에서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많은 고객들로 인해 대형사고가 될 수 있으므로 월1회 「비상대피 및 소방훈련」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 사다리 작업시 2인1조로 보호구를 반드시 착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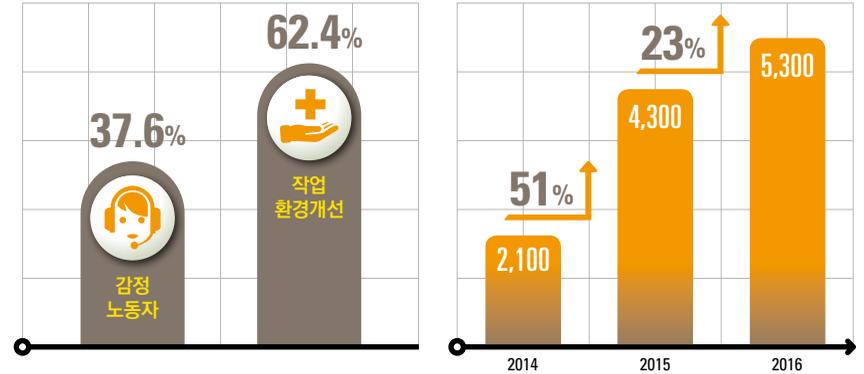
▲ 소방훈련



▲ 근로자 안전교육

지속적인 산재 예방활동 예산 증가

(단위 : 만원)



▲ 감정노동자를 위한 힐링센터 운영



▲ 주차장 일사병 예방 냉풍기 설치



▲ 우천시 넘어짐 예방 카펫 설치

“노사가 함께 하는 위험성평가 실시는 물론 각 협력사의 사업주와 노동조합이 함께 참여하는 위험성평가 간담회도 실시하고 있어요. 사내협력사 6개 업체 중 2개 회사가 위험성평가 인증을 받았습니다. 현재 추가 2개 업체가 심사 중에 있고요. 올해 내 모든 협력사의 100% 위험성평가 인증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안전을 위해서는 노사가 따로 없고 본사와 협력업체가 따로 없죠. 지난 해 2월에는 광주지방고용노동청과 안전보건공단 광주지역본부가 개최하는 광주권역 산재감소를 위한 「산업재해예방 결의대회」에 참가하기도 했습니다.”

안전에 관해 모두가 함께 머리를 맞댄 결과, 그 어느 해보다 더 무더웠던 올해 여름 주차 직원의 「일사병 사고 예방을 위한 냉풍기를 설치」 및 우천시 매장 출입구에 「넘어짐 예방 카펫 설치」 등 다양한 안전 아이디어가 나와 실제 적용되었다.

“어, 이게 뭐야, 에스컬레이터 위에 별도의 출입문이 있네.” 광주점을 방문한 고객이라면 한 번쯤 고개를 가우뚱거리게 되는 10층 에스컬레이터 위에 설치된 출입문. 문을 열고 들고 내려면 어른의 손이 닿는 위치에 설치된 출입 버튼을 눌러야만 한다. “10층에는 문화센터가 있어요. 이 곳에는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도 많이 운영하고 있죠. 아이들은 아무리 주의를 주더라도 어디로 튈지 모르는 럭비공 같잖아요. 그래서 가끔 에스컬레이터에서 장난을 치다가 아찔한 사고가 발생할 뻔 하기도 하죠. 이러한 아이들의 사고를 미리 차단하기 위해 따로 버튼을 눌러야만 출입할 수 있는 안전문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안전을 위한 세심한 배려가 아이를 가진 주부들에게 잔잔한 감동까지 선사하고 있다.

마음을 갉아먹는 갑질은 가라!

감정노동자를 보호하라

얼마 전, 한 백화점에서 매장 직원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며 갑질을 하는 고객의 영상이 SNS를 타고 퍼지며 ‘고객의 갑질논란’이 뜨거웠다. 매장 직원이 고객의 막무가내 갑질에 견디다 못해 무릎까지 꿇는 모습에 모든 사람들은 공분했다. 이 사건을 계기로 감정노동자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고객의 폭언으로 우울증에 걸린 감정근로자가 산 업재해로 인정받기에 이르렀다.

롯데백화점 광주점의 직원들도 대부분 감정노동자이다. 고객들 앞에서 항상 웃음을 유지해야 하는 서비스직인 것이다. 일명 ‘고객은 왕이다’라는 인식 속에 각종 인권침해, 성추행, 폭력 등에 노출되어 있음에도 속으로만 분을 삭여야만 했던 이러한 감정노동자를 위해 지난 2015년부터 롯데그룹은 기업문화개선위원회를 신설하고 이들을 위한 유통업계 최초로 블랙컨슈머에 대응하는 기준이 되는 「자가 보호 매뉴얼」을 창간했다. 또한 2001년부터 업계 최초로 운영해오던 직원을 위한 전용 상담실인 힐링센터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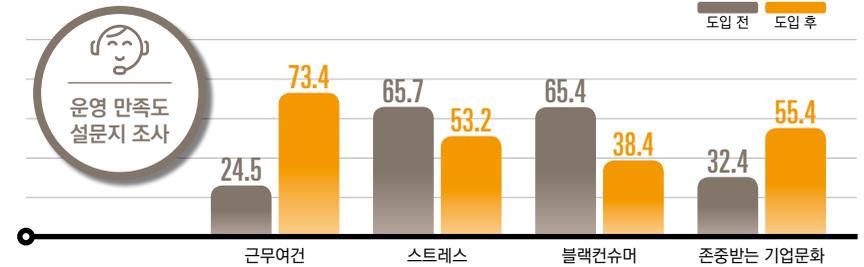
감정노동자 보호 업무성과 및 프로그램 운영 전/후 만족도



▲ 현장 간담회 (2013) ▲ 자기보호 매뉴얼 선포식 (2014) ▲ 광주지역사회 실천 협약 (2014)



▲ 광주지역사회 실천 협약 (2015) ▲ 창조적 노사문화 선포식 (2015) ▲ 정신건강증진센터 협약 (2016)



감정노동자 복지시설 개선

소통 프로그램 진행을 통한 현장 의견 반영 개선, Total Health Care Center (기존 상담실, 의무실 통합), 파트너사 감정노동 근로자 지원을 위한 시설 개선



▲ 예비맘 라운지 신설 (2016) ▲ 카페형 휴게시설 확충 (2014) ▲ 무료 안마의자 증설 휴게실 설치 (2015)

기능을 한층 강화하여 상담실과 의무실을 통합, 카운슬러, 미술상담사, MBTI 강사, 감정노동관리사와 함께 보건관리자가 상근하며 언제든지 직원들과 개인상담 또는 그룹상담이 가능하도록 했다.

마음과 함께 몸까지 편히 쉴 수 있는 하드웨어적인 지원도 강화하여 층별 휴게소에 무료 안마시설과 카페형 휴게시설, 예비맘 라운지도 신설했으며 매월 1회 지역 병원 및 보건소 등과 연계한 인바디, 혈관, 혈당, 체력측정, 금연, 음주관리도 실시하고 있다. 어느 기업과 비교해도 손색없는 휴게시설과 각종 지원에 직원들의 자부심도 덩달아 높아졌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지난 2015년 광주점은 근로자건강증진 우수사업장 인증을 받았다.

롯데백화점은 유통업계의 선두주자라는 자부심으로 직원들의 안전과 복지에도 늘 한 발 앞서 생각하고 실천해 나간다는 마인드다. 최근에는 업계 최초로 자동 육아 휴직제도를 실시하여 출산을 하는 경우, 그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자동으로 육아 휴직을 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했다. 이러한 제도는 남자 직원에게도 물론 해당된다. 이러한 남다른 행보에 언론의 관심도 뜨거워 얼마 전에는 KBS 지역 방송국에서 '일과 가정 양립제도의 벤치마킹 사례'로 광주점을 촬영하기도 했다. 광주점은 앞으로도 노사는 물론 협력사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 더 안전하고 행복한 일터가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소통 채널을 활용해나갈 예정이다.



▲ '15년 건강증진활동 우수사업장 인증 수여식



▲ 인바디, 혈관측정



▲ 건강음주 캠페인

🍃 Safety Interview

직원들이 행복하고 건강해야 서비스의 질이 높아진다



백화점에서 근무하는 모든 직원들은 감정노동자입니다. 항상 웃으며 고객께 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업이니까요. 이러한 감정노동자의 고충이 사회적 이슈가 되기 시작한 때는 2010년부터인 것 같습니다.

롯데백화점의 경우는 2013년 9월, 국회 환경위원회 소속의 위원들이 본사를 방문해 감정노동자 문제에 대한 간담회를 실시하면서 본격적으로 논의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이듬해인 2014년 2월 안전보건공단과 함께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한 선포식이 거행되었고 이 때 업계 최초로 감정노동자 자기보호 매뉴얼을 선보였습니다.

광주점도 본사의 기본 방침에 발맞추어 지난 2015년 9월 10일 광주지방 고용노동청장을 모시고 감정노동근로자 권리보호 및 근로환경 개선에 관한 업무 협약식을 체결했습니다. '직원들의 고민과 스트레스를 어떻게 해결해줄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 끝에 광주점은 힐링센터 운영을 실질적으로 더욱 강화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 것이라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실제 직원의 70~80%가 여성으로 마음 속 이야기를 많이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 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객에게 받는 다양한 형태의 스트레스는 물론 점장이나 상사에게는 하지 못하는 '밀바닥 정서'를 서로 교감

하면서 현장의 분위기가 많이 밝아졌어요. 상담시 기본 자료가 되는 스트레스 지수 측정도 광주점에서 제일 먼저 도입한 프로그램입니다.

또한 매월 기본 건강체크는 물론 그룹 상담이나 웃음 특강 등을 통해 스트레스나 화가 안으로 쌓이지 않고 밖으로 표출될 수 있게끔 하고 있죠. 작년만해도 이러한 프로그램 운영에 총 1억 1천만원 이상의 투자가 이루어졌습니다.

올해 9월 13일에는 동부경찰서와 또 하나의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블랙컨슈머의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갑질에 강하게 대처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시스템을 마련한 것이죠. 얼마 전, 실제로 블랙컨슈머에게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 승소한 경우도 있고, 강제퇴실 조치를 취한 적도 있습니다. 이 모든 활동이 직원에게 '회사가 시스템으로 여러분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있습니다'라는 인식을 주죠. 협력업체 직원을 포함한 전직원이 행복하게 웃으며 일할 수 있는 광주점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세심하게 살피고 추가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해 나갈 것입니다.

정 환 진

기업문화 매니저



한 눈에 보는 '롯데백화점 광주점'

롯데백화점 광주점은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는 롯데'라는 기업의 안전 목표 아래 안전경영 10계명 선포, 안전실천의 생활화를 지향하고 있다. 특히, 백화점에서 일하는 직원 모두가 고객을 향해 매일 웃어야 하는 감정근로자이기 때문에 보다 특화된 근로자 보호 시스템으로 관리하고 있다. 2001년부터 업계 최초로 운영해오고 있는 전용 상담실인 힐링센터를 비롯하여 층별 휴게소 무료 안마시설과 카페형 휴게시설, 예비맘 라운지 운영, 나아가 지역 병원 및 보건소 등과 연계한 전직원 건강관리로 롯데백화점 광주점은 지난 2015년 근로자건강증진 우수사업장 인증을 받았다.

 <p>사내 사고 신고번호 운영 보다 신속한 사고 접수와 대응을 위해 사내 신고번호 운영</p>	<p>10</p>  <p>안전경영 10계명 기업의 안전 목표인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는 롯데'를 실천</p>	 <p>작업 준수 안전교육 작업 전 철저한 주변환경 및 도구의 안전점검, 비상대피 및 소방훈련 등</p>
 <p>산재 예방활동 예산 지속적 증가 올해 내 모든 협력사 100% 위험성평가 인증 목표</p>	 <p>아이들의 안전사고 차단 문화센터층 에스컬레이터 앞 안전문/출입버튼 설치</p>	 <p>자가보호매뉴얼 창간 유통업계 최초로 블랙컨슈머를 대응하는 기준 마련</p>
 <p>전용 상담실 힐링센터 운영 강화 전문가들이 상근하여 언제든지 개인/그룹 상담 가능</p>	 <p>자동 육아 휴직 제도 출산과 동시에 자동 휴직 신청되는 제도 도입</p>	<p>LOTTE DEPARTMENT STORE</p>

함께하는 안전
문화가 되어

처음부터 다시 안전하게 흐르게 하라

국가 수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홍수와 같은 재해로부터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수자원 시설물의 건설 및 운영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우리나라 유일의 물 전문 공기업인 한국수자원공사. 그러나 근로자들은 항상 밀폐공간, 중장비, 건설기계설비, 추락 등의 각종 위험사고 환경에 노출되어 있어 좀처럼 재해율이 개선되지 않았다. 이에 한국수자원공사는 기초부터 탄탄하게 다시 시작한다는 마인드로 ‘안전한 일터, 건강한 근로자, 행복한 K-water’의 비전을 가지고 다시 시작하고 있다. 목표는 국내 평균 재해율 대비 50% 수준 달성! 개인의 안전의식 강화와 안전시스템 마련 등에 힘쓰는 결과 2015년 대비 재해율 29%의 감소라는 성과를 일궈 냈다.



+ Safety Story

한국수자원공사

📅 설립일	1967년
📍 본사 소재지	대전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
👥 임직원수	4,496명
📉 매출액	3조 6,877억원
🏢 기관형태	준시장형 공기업



깨끗한 물을 위해

위험에 노출된 사람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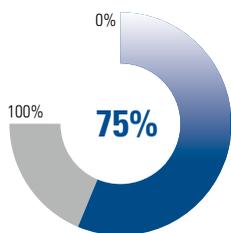
국민들에게 깨끗한 물을 공급하기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밤낮없이 땀 흘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우리가 아무 생각없이 마시는 한 잔의 물에 대한 각종 정보 조사와 분석,물관리 예측 및 운영, 수자원 시설 유지 관리, 유역이나 하천 저수지의 수질 관리, 취수원 수질관리, 정수처리 시스템 운영 관리, 산업용수 공급, 하수처리 등을 행하는 근로자들을 말한다. 국가의 수자원을 종합적으로 개발 관리하고, 수질 개선을 통해 보다 깨끗한 물을 공급하기 위해 노력하는 이들의 작업환경은 깨끗한 물과는 달리 험하고 열악하기만 하다. 지난 2016년에도 성남의 밀폐공간에서 작업하던 근로자 2명을 비롯한 가시설에서 1명, 건설기계로 인한 사고로 1명의 소중한 목숨이 사라졌다.

깨끗한 물을 생산해내기 위해 연구원에서는 무수한 실험이 이루어진다. 깨끗한 물 한 병을 만들기 위해서도 국가검사기준에 의거 약 250여 항목의 실험 검사가 실시된다. 이러한 실험 검사에는 유해화학물질을 포함한 수많은 시약이 사용된다. 작년에는 실험을 하던 연구원의 손에서 유해물질이 담긴 병이 미끄러져 깨지며 화상사고가 발생했다.

“사실 평소에 안전사고에 대한 심각함을 느끼지 못했어요. 매일 반복적으로 해오던 일이었으니까요.”, “연구실에서 발생한 화상사고로 인해 모두가 안전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갖게 되었죠.”, “연구실에는 위험요소가 곳곳에 산재해 있어요. 정말 수많은 사고가 도사리고 있죠. 화상사고 이후로 실험 중에는 철저히 안전 보호장비를 착용하고 각 위험요소가 있는 곳에는 안전보건공단에서 배포한 안전표지 포스터와 스티커를 모두 부착했어요. 이와 함께 안전에 대한 교육도 더욱 강화되어 2016년 5월 2일에는 연구원장과 연구소장 등 부서장 33명이 산업안전교육을 받았고, 5월 13일에는 현장 부서장 44명을 대상으로 위험성평가 교육이 최초로 실시되었습니다.”

연구실 외부에도 비상 경보 장치를 설치해 화재나 유독 가스 발생시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시설 개선도 이루어졌다. 평소에 미흡한 안전의식과 안전관리로 인한 이와 같은 사고가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대응이다.

최근 6년간 업무상 재해 현황							밀폐공간/중장비로 인한 사망사고	
구분	'11	'12	'13	'14	'15	'16	연도	사망자 수
공사	재해율(%)	0.29	0.19	0.12	0.23	0.35	2010년	5명
	발생건수	12	8	5	10	15	2011년	8명
	산재사고	9	7	4	6	13	2012년	2명
	자체공상	3	1	1	4	2	2013년	1명
국내	재해율(%)	0.65	0.59	0.59	0.53	0.50	2014년	1명
							2015년	4명
							2016년	4명



안전규정 미준수 및 안전불감증 관련 발생률, 전체 75%에 해당								
구분	합계	'10	'11	'12	'13	'14	'15	비고
안전규정 미준수	17	3	3	2	2	3	4	41건/총 55건
무관심, 부주의	24	8	3	3	1	3	6	
안전시설 미흡	1	0	1					
기타사항	13	3	4	2	1	2	1	질병, 돌발사고

재난대응 골든타임을 지켜라 시스템 정비부터 시작해 자율적 참여로

국민에게 보다 깨끗한 물을 공급하기 위해 앞만 보고 달려왔던 한국수자원공사는 더 이상 안전사고에 대한 예방 조치 강화를 미룰 수 없었다. 이에 「K-water 안전관리 마스터플랜」에 따른 안전보건 경영체계를 확립하고 예방 중심의 안전관리 정착과 위기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시스템 정비에 들어갔다.

“제일 먼저 컨트롤 타워의 기능을 강화했어요. 재난관리의 일원화 및 지휘체계의 강화는 최근 사회에 큰 이슈가 되었던 대형 사고에서 볼 수 있듯이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2015년 재난 및 안전관리 활동에 있어 전 과정을 컨트롤 할 수 있는 전사 안전업무의 총괄 조정부서로서 부서장 직할의 재난안전실을 신설했다. 재난 안전, 시설안전, 건설안전, 산업안전, 위기관리를 담당하는 재난안전실은 2017년 인력 보충과 조직 변경으로 기술안전실로 변경되었다. 안전관리에 대한 확고한 의지는 CEO를 포함한 전직원의 「산업재해 ZERO K-water」를 위한 안전관리현장 및 인권경영 선언문 제정으로도 엿볼 수 있다. 또 안전분야 최상위 규정인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전면 개정하여 「위험성평가 실시», 「도급사업시 안전보건조치», 「안전사고 대응체계 구축」 등의 내용을 강화하였으며 본사와 현장간의 업무를 명확히 했다.

2017년에는 밀폐공간 사고의 잦은 발생에 따른 조치로 밀폐공간 안전조치 내용을 규정에 추가하였으며, 인사사고 발생시 보고 체계도 조정하여 안전관리에 있어 사각지대가 없도록 조치한 부분도 눈에 띈다. 모든 유형의 재난에 대해서도 위기 대응부터 사후관리까지 「리스크 관리시스템 (KRM, K-water Risk Management)」을 통해 체계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업그레이드했다. 시스템에 의한 각 단계별 대응사항은 SNS 및 이메일을 통해 업무 관련자가 즉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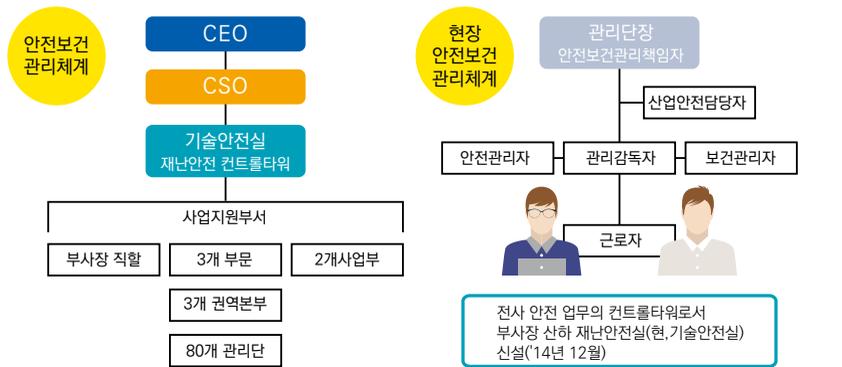
“선배님, 응급복구 장비가 현장에 도착했는지 확인해 주세요”, “대리님은 재난대

응 상황실에서 리스크 관리시스템으로 관련부서와 계속 공유해 주세요” 위기대응 모의 훈련 시간이다. 한국수자원공사는 전 부서를 대상으로 정기(연 2회) 및 불시 모의훈련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실제 재난이 발생했다는 가정 하에 참여 부서의 대응체계를 점검해볼 수 있는 기회로 평가 기준에 따라 훈련의 전과정이 평가된다.

“훈련 계획을 수립하고 훈련 시나리오를 작성해요. 훈련 과정과 결과 평가에 따라 연말에 우수부서에 대한 포상도 이루어져 다들 열심히죠.”, “아니, 안전모를 얼굴에 맞게 꼭 채워야죠. 어디에 부딪치면 벗겨지잖아요.” 최 과장은 머쓱한 표정을 지으며 바로 턱 밑에 잠금장치를 채운다. 이 날만큼은 서로의 지적에 군말없이 따른다. 왜, 위기상황 이니깐.

한국수자원공사는 전 직원이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무재해운동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1987년 여수권관리단(21배 달성)을 시작으로 모든 사업장이 무재해운동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하며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안전에 관해서는 현장의 자발적인 실천없는 개선이 힘들기 때문이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2015년 무재해운동 참여 사업장이 47개소였던 것에서 2016년에는 75개소로 139% 증가하는 성과를 이루어 냈다.

K-water 안전 및 조직체계



아차, 하는 사이에 발생하는 사고 돌다리도 두드리며 건너듯

“하수처리장은 설비가 많아 정말 위험해요. 게다가 적은 인원이 운영관리를 맡다 보니 안전에 크게 신경을 쓰지 못하죠. 이번 안전보건공단의 컨설팅이 하수처리장에서 산업재해를 줄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 확신하여 또한 지속적으로 관리되기를 바랍니다.” 상하수도처 물재생사업부 정용채 부장의 바람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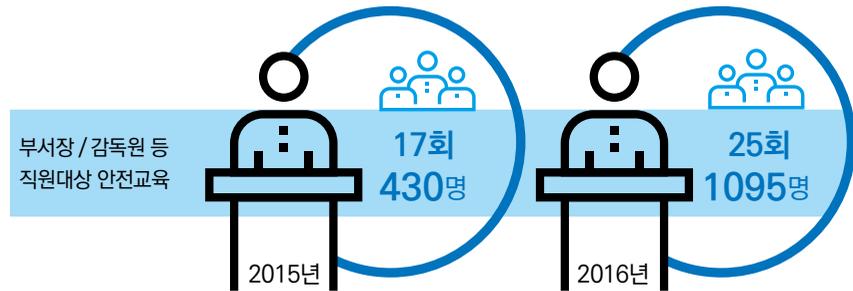
산업재해 위험군으로 분류되는 하수처리장은 추락사고, 밀폐공간으로 인한 질식 사고가 자주 발생한다. 이에 한국수자원공사는 안전보건공단 전문가를 활용한 하수처리장 맞춤형 산업안전 컨설팅으로 위험요소를 발굴하고 시설 개선을 하는 등 산업안전 관리체계를 정착해나가고 있다.

2016년부터 2017년까지 총 3차례 실시된 컨설팅으로 9개소 하수처리장에 대해 추락방지 경고표지 미흡, 안전난간 미설치 및 불량 사다리 사용 금지 등 총 148건의 개선사항이 지적되었으며 모두 조치하여 안전한 하수처리장을 만드는데 한 몫을 하였다. 이와 함께 안전보건공단과 협업하여 다목적댐, 수도사업장 등 30개 사업장에 대한 위험

성평가 컨설팅도 실시하고 있으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상위 부서에 대해서는 우수사업장 인정을 받을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컨설팅을 받은 결과를 바탕으로 산업안전 가이드라인을 제작해 산업안전 담당자들이 타 사업장의 우수사례를 현장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밀폐공간에서 작업을 할 때는 공기 측정은 물론 공기 호흡기나 송기 마스크 등 안전보호구 착용은 필수죠. 그런데 불편하다는 이유로 가끔 지키지 않을 때가 있지요.” 밀폐공간 작업시 유해가스 발생으로 인한 사고가 끊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안이한 안전의식이 사고와 직결되곤 한다. 이에 한국수자원공사는 「밀폐공간 보건작업 프로그램」 표준양식과 교육자료를 배포하고, 긴급구조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현장에서는 감독자를 배치하고 업무 분장을 명확히 하여 밀폐공간 사고 예방과 응급조치를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다.

또한 소음, 진동, 악취 등의 유해환경에 노출되어 있는 취수장, 가압장, 탈수기동, 병물공장, 발전소 등 등 5인 이하 소규모 사업장 총 56개소를 조사하여 최종 16개 사업장을 선정, 위생설비 및 환경 개선을 실시했다.



▲ 현장 근로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을 지키자'라는 문구가 적힌 안전병물 총 36,000병 배포



물은 생명이다, 안전도 생명이다 물을 매개로 한 전국민 안전홍보 캠페인

“먼저 고개를 젓혀 기도부터 확보해야죠.”, “지금 사랑하는 가족이 쓰러졌다고 생각해보세요.”, “체중을 실어 더 힘차게 누르세요.”

매년 6월 4일 실시하는 ‘국민과 함께, 전직원이 함께’ 참여하는 「안전점검의 날」 풍경이다. 한국수자원공사 안전점검의 날은 다른 기업의 모습과 사뭇 다르다. 매일 테마가 있는 안전교육으로 유관기관과 공동행사를 추진하며 사업장 인근 주민은 물론 직원 가족이 함께 참여해 위험요인을 모니터링 한다. 2016년은 총 4,092개소를 대상으로 1,897개 점검반 5,942명이 안전점검에 투입되어 1,428건의 개선사항을 발굴하는 성과를

냈다. 참여형 안전문화 운동은 한국수자원공사의 가장 큰 장점이기도 하다.

국민 모두에게 꼭 필요한 물이라는 매개체가 있기 때문이다. 안전 실천의지를 담은 「안전배지 착용」, 「차량 안전스티커 부착」, 「재난안전 사진전」 모두 전직원이 함께 동참하는 안전활동들이다.

“전국 19개의 물 문화관을 운영 중이에요. 매일 유치원 꼬마부터 노인들까지 많은 국민들이 찾아 오시죠. 국민들의 안전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 물 문화관에서는 물 재해 및 재난 대응 국민행동요령 동영상 상영하고 있어요.”



전국 22개 지자체 시민들을 대상으로 배포되는 수도요금 고지서도 알뜰하게 활용한다. 고지서 내 「안전신문고」란을 만들어 생활 속 안전 위협 요소를 신고, 발견 즉시 신고할 수 있는 「안전신문고」앱 설치 방법도 홍보하고 있다. 이 밖에 한시라도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놓치지 않게 PC 화면보호 기능을 활용해 안전보건공단의 전국민 안전문화 캠페인 웹툰 ‘가족을 지킨다는 것’을 게시하고 있다.

“해도 해도 이렇게 더운 여름이 또 있었네요?”, “가만 있어도 땀이 비 오듯 쏟아지는 이런 날에 물 한 병은 꿀맛인가라~” 유난히 찜뽀 더위가 기승을 부렸던 올 여름, 한국수자원공사는 건설공사를 수행하는 현장 근로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을 지키자’라는 문구가 적힌안전병물 총 36,000명을 배포하기도 했다.

물은 생명이다. 인간이 살아가기 위한 필수조건이다. 이제껏 소중한 깨끗한 물을 만들기 위해 안전에 잠시 뒷전으로 미루어 두었던 한국수자원공사. 하지만 이제 물도 안전도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요소임을 자각하고 한국수자원공사 전 사업장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무재해운동을 추진해나갈 예정이다.

Safety Interview

안전은 교육으로부터 출발, 사전 예방 활동의 중요성



한국수자원공사는 대한민국 대표 물 전문 기업으로서 깨끗한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스마트물관리 체계를 더욱 고도화하여 서비스 질 향상은 물론 수량 및 수질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제껏 이러한 본연의 임무에 집중하느라 안전에 대한 교육은 뒷전으로 밀려 지난 2015년까지 재해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이에 지난 2015년 ‘K-water 안전관리 마스터플랜’에 따른 안전보건 경영방침을 수립하며 대대적인 시스템 정비와 예방 중심의 교육을 시작했습니다.

실제 가장 큰 문제점은 각 사업장 산업안전 담당자의 36%가 3년 이내에 입사한 신입 사원으로 안전에 대한 정보 및 경험부족으로 인해 안전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산업안전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과 안전관리 실태점검도 미비하여 안전 불감증이 만연해 있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늘어가는 도급사업으로 인해 협력업체 직원 수가 많아지는 것과는 반대로 위험의 외주화에 대한 관심도 적었던 것도 한 사실입니다.

그렇기에 무엇보다 안전교육에 대한 필요성을 인지하고, 안전교육 프로그램 및 대 내외적인 안전 시스템 강

화에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각 사업장 담당자는 물론 부서장 교육도 실시하였으며 올해부터는 체계적으로 안전보건교육 e-learning 과정을 개설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지난 2016년 재해율 26% 감소를 기록했습니다.

올해 한국수자원공사는 동부하수처리장을 비롯한 30개소를 대상으로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 인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향후에는 전 사업장으로 확대해나갈 예정입니다.

안전교육과 사전 예방활동 성과를 보여 안전점검과 위험요소 제거의 중요성에 대해 느낀 것이 많습니다. 원인이 없는 결과가 없듯이 말이죠. 이에 앞으로는 비단 우리 공사 뿐 아니라 모든 국민이 이용하는 물을 매개로 하여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안전문화 캠페인을 적극적으로 펼쳐나갈 계획입니다.

이 종 연

기술안전실 재난안전부 부장



한 눈에 보는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수자원공사는 국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깨끗한 물 공급을 위한 수자원 시설물의 건설 및 운영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우리나라 유일의 물 전문 공기기업이다. 자연이 준 소중한 물에 인간의 노력을 더해 더 깨끗한, 더 안전한 물을 관리하기 위해 근로자들은 항상 수많은 위험사고 환경에 노출되어 있다. 이에 한국수자원공사는 안전에 관해 기초부터 탄탄하게 다시 시작한다는 마인드로 안전교육과 안전시스템 체계화 등에 매진한 결과 2015년 대비 재해율 29%의 감소라는 값진 성과를 일구어 냈다.

함께하는 안전
문화가 되어

 <p>기술안전실</p> <p>재난관리의 일원화 및 지휘체계의 강화</p>	 <p>리스크 관리시스템 (KRM)</p> <p>위험 대응 사항은 SNS 및 이메일을 통해 업무 관련자가 즉시 확인</p>	 <p>안전보건공단 컨설팅 전문가</p> <p>위험요소를 발굴, 시설 개선 등 산업안전 관리체계 정착</p>
 <p>산업안전 가이드라인</p> <p>산업안전 담당자들이 타 사업장의 우수사례 현장에 활용</p>	 <p>안전점검의 날</p> <p>테마가 있는 안전교육, 유관기관과 공동행사, 주민/직원 가족이 함께 참여</p>	 <p>참여형 안전문화 운동</p> <p>5,942명이 안전점검에 투입 1,428건의 개선사항 발굴</p>
 <p>안전신문고</p> <p>수도요금고지서 활용 안전 위험요소 신고</p>	 <p>36,000 안전병물 배포</p> <p>혹서기 안전병물 배포로 건설공사 현장 근로자의 안전사고 예방</p>	

다다다다! 칼질은 신나게 교육은 게임처럼 즐겁게

삼성웰스토리리는 1982년 호암관, 해운대 연수소 등의 삼성그룹 연수원에서 식음서비스를 시작하면서 출발하였다. 이후 신선한 식자재 배송을 위한 최첨단 물류 인프라 확장과 식품연구소와 조리 아카데미 등 R&D 투자를 기반으로 현재는 전국 700개의 식당에서 16,000명의 직원이 맛과 영양이 조화된 건강한 식사를 만들고 있다. 매일 음식을 준비하는 주방에는 항상 수많은 안전사고 요인이 숨어있다. 이에 삼성웰스토리리는 2015년 안전관리 체계는 갖추어져 있으나 직원들의 안전의식이 부족하고 수동적이라는 DNV 안전문화 평가 56점을 받았다. 하지만 지속적인 안전관리 교육 실시로 2016년에는 66점으로 안전보건 활동에 모든 직원들이 자발적이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단계라는 평가를 받았다.



+ Safety Story

삼성웰스토리

 설립일		1982년 (2013년 법인분할)
 본사 소재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로 8
 사업장수		700개 식당
 근무 직원수		16,000명 (협력직원 포함)



내 아픔 알아주는 그대 또 하나의 가족

나이 탓일까? 오늘 아침은 유난히 손목이 저릿저릿하고 어깨가 무겁다. ‘어제 저녁, 어깨에 붙이고 잔 파스가 효과가 없는 걸까?’ 김 여사는 고개를 가우똥거리며 한껏 기지개를 켜며 스트레칭을 해본다. 그 모습을 보고 옆에서 남편이 한마디 거든다.

“살을 좀 빼, 몸이 너무 무거워서 그런 거 아니야? 평소엔 운동도 좀 하고.” 야속한 남편. 하루 종일 주방에서 정신없이 왔다갔다 하노라면 온몸이 파김치가 되건만, 속도 모르고 무심히 툭 내뱉는 남편의 말에 우울함까지 밀려든다. ‘조금 더 심해지면 오늘은 물리치료라도 받아야지. 아니 한의원에 가서 침을 맞으면 더 빨리 나올까.’ 이런 저런 생각을 하며 김 여사는 출근 준비를 서두른다.

주방에서 근무를 하는 근로자는 대부분 중년 여성이다. 근골격계 질환이나 족저근막염이 염려되는 연령대이다. 더구나 일터에서 일을 한 후, 가정에 돌아가서도 또 가사 일을 해야 하는 터라 좀처럼 자기 몸을 돌볼 마음의 여유는 물론 시간적 여유도 없다. 이러한 상황이 병을 키우고 피로가 누적되어 가끔 사업장내 안전사고와 연결되기도 한다. 심신이 건강하고 활기차지 않으면 산업재해발생율이 증가하는 것이다. 이러한 점을 잘

알기에 삼성웰스토리는 직원들의 평소 건강과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각 부분별 건강과 안전을 해치는 요소를 철저히 파악해 사전 예방조치와 관련 프로그램 마련으로 최적의 시스템으로 관리하고 있다.



칼질이 신이 난다
조금 특별한 웰스토리의 도마

삼성웰스토리는 1982년 호암관, 해운대 연수소 등의 삼성그룹 연수원에서 식음서비스를 시작으로 그 맛과 서비스의 우수성이 입소문을 타면서 본격적인 푸드서비스 기업으로 성장해왔다. 맛 평가지수(FQI : Foodservice Quality Index)와 같은 과학적



위생 서포터즈
 연간 2,500회 사업장
 위생안전 점검/지도



안전 서포터즈
 연간 30,000건 시설개선
 지원



건조구역(Dry Zone)
 식음시설의 주방 내
 건조구역을 유지



▲ 삼성웰스토리 16,000명의 웰프로는 전국 총 700개 식당에서 110만 식사를 만들고 있다.



▲ 무거운 도마를 옮길 때 일어나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도마에 손잡이 구멍을 뚫은 후 도마 관련 안전사고를 제로화.

인 메뉴진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표준화된 조리 프로세스로 언제나 맛있고 건강한 푸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삼성웰스토리는 현재 기업체를 비롯하여 백화점, 병원, 연수원, 관공서 등 총 700개 식당에서 16,000명의 직원이 하루 110만 식사를 만들고 있다.

삼성웰스토리는 각 사업장에 근무하는 조리원들을 “웰프로”라고 부른다. 이러한 웰프로의 평균 연령은 55세 이상. 최근에는 연령대가 더 높아지는 추세이다. 그만큼 직원 고령화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한 교육과 프로그램 마련이 중요하다 할 것이다.

“김웰프로님. 도마 좀 가져다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예전에는 도마가 무거워 떨어뜨려 엄지발톱이 시키땡게 죽기도 했어요.”, “이제 도마를 운반할 때 마음이 편하고 팔, 허리, 다리가 긴장되지 않아 좋아요.”, “이동도 쉽지만 소독고에서 넣고 뺄 때 정말 편해졌어요.”

식당에서 사용하는 도마는 크기도 낱다르지만 무게도 3Kg에 달한다. 웬만한 아기 한 명의 무게다. 게다가 가장 빈번하게 사용하는 터라 수시로 들었다 놓았다를 해야 한다. 대부분의 식당이 손잡이 없는 도마를 사용하고 있기에 크고 무거운 도마를 운반하는 중 떨어뜨림 사고는 물론 무거운 물건을 수시로 들어야 하기에 근골격계 질환까지 유발하는 원인이 된다. 이에 삼성웰스토리는 이러한 근본적인 원인을 제거하고자 도마에 손잡이를 만드는 방법을 제안하여 도마에 직사각형 모양의 손잡이를 시공했다. 삼성웰스토리 안전서포터가 각 사업장을 방문해 현장 파일럿 테스트를 통해 가장 편한 손잡이 위치와 규격을 확정하고 현장에서 작업을 수행한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전 사업장의 2,009개에 달하는 도마에 손잡이 제작이 이루어졌다.

“지난 2015년 9월부터 도마 손잡이 제작 작업이 이루어졌어요. 도마의 가로 부분과 세로 부분에 저희 웰프로님의 작업 특성에 맞게 맞춤 손잡이를 만든 거죠. 그 이후로 놀랍게도 도마 관련 안전사고 Zero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현장에서 안전사고의 위험 요소에 대한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고 개선하면 그 효과가 얼마나 큰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눈으로 말하면? 절대 몰라요. 큰 목소리로 안전말하기

삼성웰스토리는 모두가 함께 하는 안전문화를 슬로건으로 안전문화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WAVE는 이러한 웰스토리의 안전문화 브랜드로 Welstory safety + SAVE를 조합한 약자로 실천(Action), 확인(Verification), 교육(Education)을 의미한다. 이러한 안전 캠페인으로 가장 큰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이 바로 안전말하기 즉, 「Safety-Talk 활동」이다.

“뜨겁습니다. 조심하세요.”, “지나갑니다. 조심하세요.”, “미끄럽습니다. 조심하세요.”, “빠질 수 있어요. 조심하세요.”, “무겁습니다. 도와주세요.”

이러한 안전말하기 캠페인은 안전보건공단이 제안한 ‘3SB(Safety Behavior)’를 업계 최초로 적용해 만든 캠페인으로 3년째 시행하고 있다. 시설적인 위험 요인 관리만으로는 한계가 있기에 서로에게 위험요소에 대한 주의사항을 말로써 알리는 활동이다. 실제로 이 활동은 현장에서 가장 큰 효과를 발휘하고 있으며 시행 전후 대비 데임사고 35%,

안전말하기 (Safety-Talk) 활동

작업 중 일어날 수 있는 위험에 대해 주변에 큰 목소리로 알리기



넘어짐 사고 20% 감소효과를 거두고 있다. 이러한 안전말하기 활동은 안전 사고 예방은 물론 서로의 커뮤니케이션을 원활하게 해 사업장의 활기까지 불러일으키는 선순환 효과를 불러 일으키고 있다. 이와 더불어 삼성웰스토리는 매년 안전문화 실천 공모전을 통해 현장에서 느끼는 안전에 대한 다양한 문제점과 개선 아이디어를 듣고 있다.

지루한 안전교육은 가라! 게임처럼 재미있는 안전교육



삼성웰스토리의 안전교육은 특별하다. 교육은 귀찮고 재미없다는 인식을 탈피하기 위해 보다 다양한 방법을 연구 적용하여 참여자가 재미있고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어, 안돼!” 서 있는 앞이 허공이건만 위험한 듯 두 손을 마구 휘젓는 김 웰프로. “하나 둘 셋, 쪽쪽! 아! 시원해” 팔 다리를 시원하게 펴며 힘찬 구령 소리를 내며 스트레칭을 따라 하는 송 웰프로. 삼성웰스토리의 「VR(가상현실) 안전체험 교육」현장이다.

삼성웰스토리는 교육자의 흥미를 유발시키고 재미있게 안전교육을 시행하고자 「VR 안전체험 교육」을 하고 있다. 교육자는 VR기를 이용해 가상 현실 속에서 사고를 가상 목격한 후 잠재 위험요소를 발굴하고 평가하는 VR 위험성평가를 하는가 하면 전문 강사없이 VR을 착용한 후 VR 스트레칭을 따라하며 배우기도 한다. 이러한 VR 안

전체험교육을 위해 삼성웰스토리는 동종업계 최초 VR용 안전관련 콘텐츠를 제작했다. 현재 활용하고 있는 콘텐츠는 넘어짐, 베임, 요통, 화재, 스트레칭 등이며 앞으로 계속 콘텐츠를 보강해 추가 제작할 예정이다. 현장 경험이 부족한 신입사원의 경우, 가상 현실을 통해 미리 근무 환경을 숙지하고 이에 따른 안전사고를 미리 경험함으로써 사전 예방 효과가 더욱 높아지기 때문이다.

이러한 「VR 안전체험 교육」과 함께 「안전보호구 체험 교육」도 실시한다. 직접 베임방지 장갑과 미끄럼 방지 신발 등을 신고 성능을 비교 체험해보며 그 안전성을 직접 보고 느끼는 시간이다. “아무래도 안전보호 장비는 착용하면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굳이 착용해야 하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냥 설명이 아니라 직접 체험해보니 착용 전과 후가 정말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이제는 꼭 착용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직접 보고 느끼고 만지는 체험교육과 안전교육을 바탕으로 손베임 장갑의 착용도 자발적으로 습관화가 이루어져 현재 손베임 사고 또한 Zero를 기록하고 있다.

도와줘요, WAVE 서포터!

동에 번쩍 서에 번쩍 안전지킴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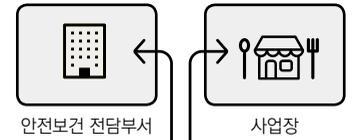
삼성웰스토리의 가장 큰 경쟁력은 안전 인프라 구축이다. 본사의 안전보건 전담부서와 사업장을 상호 있는 WAVE R&D 학습연구회가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회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 사례를 분석해 사례 공유를 하는가 하면 사업장에서 불편해하는 목소리를 직접 듣고 개선책을 마련해 시행하기도 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실현된 것이 「음성 경보장치」와 「화재예방 자리 이탈 경보장치」이다.

“기기 작동 중이니 손을 넣지 마세요.” 기기 작동 중 음성으로 알려주는 음성경보장치이다. 「화재예방 자리 이탈 경보장치」는 특히 튀김 등의 식용유를 이용한 요리시 발생하는 자연발화 화재 방지에 큰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 튀김 조리대 천정에 설치된 센서가 사람의 부재를 인식하고 일정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알람을 울리는 시스템이다.

삼성웰스토리 사업장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사람을 꼽으라면 모두가 단연 WAVE 서포터, 즉 「안전서포터」를 말한다. 그만큼 현장의 애로사항을 현실적으로 해소해주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WAVE 서포터는 안전 위해 요소를 사전에 점검하고 조치를 취해주는 역할을 한다. 웰스토리의 손잡이 도마도 이러한 안전서포터가現場을 돌며 직접 제작해주고, 기름찌꺼기가 많이 켜 자칫 화재의 위험요소가 될 수 있는 조리대 후드 청소도 해준다. 이러한 안전서포터는 모두 14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조리 전공 마스터 출신도 있어 작업의 특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에 사업장에서는 더 환영한다.

“소규모 영세사업장일수록 안전서포터를 반가워하죠. 사업장에 근무하는 분들이 중년 여성들이라 하기 어려운 안전 관련 작업들을 대신 해주시니까요.”, “사실 본사 직원이 오시면 지적을 많이 하시니 귀찮죠. 하지만 안전서포터가 오시면 고민하던 문제를 해결해주시니 정말 고맙고 자주 오셨으면 좋겠어요.”, “저희는 안전서포터를 착한 서포터라고 불러요.”

안전을 위해서는 본사 안전보건 전담부서와 WAVE R&D 학습연구회와 사업장이 하나가 되는 시스템. 이러한 하나된 마음이 건강한 식당, 함께하는 안전문화 삼성웰스토리를 만들어가는 원동력일 것이다.



Safety Interview

이 지 구 책임
삼성웰스토리 위생안전그룹

삼성웰스토리는 2015년 안전관리 체계는 갖추어져 있으나 직원들의 안전의식이 부족하고 수동적이라는 **DNV 안전문화 평가** 56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지속적인 안전관리 교육 실시로 2016년에는 66점**으로 안전보건 활동에 **모든 직원들이 자발적이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단계라는 평가를 받았죠.

안전보건공단에서 안전말하기 캠페인이나 미끄럼 방지 장화, 손베임 방지 장갑 등에 많은 도움을 주셨고, 사업장에서도 위생안전그룹과 WAVE 리더스 그룹, WAVE 안전서포터의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한 눈에 보는 '삼성웰스토리'

삼성웰스토리는 현재 전국 700개의 식당에서 16,000명의 직원이 매일 1,100,000개의 식사를 만들고 있다. 매일 좁은 공간에서 많은 양의 음식을 준비해야 하는 주방에는 항상 수많은 안전사고 요인들이 숨어있다. 이에 삼성웰스토리는 직원 상호간의 '안전말하기'와 안전예방도우미 'WAVE 서포터즈' 등 철저한 안전교육 및 안전 시스템을 통한 안전습관 형성으로 2016년 DNV 안전문화 평가에서 2015년 대비 10점 이상 상승한 66점을 받았다.

 <p>위생 서포터즈 연간 2,500회 사업장 위생안전 점검/지도</p>	 <p>안전 서포터즈 연간 30,000건 시설개선 지원</p>	 <p>건조구역 (Dry Zone) 식음시설의 주방 내 건조구역을 유지</p>
 <p>도마 손잡이 제작 전 사업장의 도마 2,009개 손잡이 제작(도마관련 안전사고 Zero)</p>	 <p>안전문화 브랜드 WAVE Welstory safety + SAVE Action, Verification, Education</p>	 <p>안전말하기 (Safety-Talk) 활동 서로에게 위험요소에 대한 주의사항을 말로써 알리는 활동</p>
 <p>안전교육의 능동적 참여 「VR 안전체험 교육」과 함께 「안전보호구 체험 교육」</p>	 <p>WAVE R&D 학습연구회 사고사례 분석, 사례 공유, 사고예방 개선책 마련</p>	 <p>삼성웰스토리</p>

